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3053

<운영전> 연구

A Study on the <unyoungjeon>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이 슬 기

<운영전>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이 슬 기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과 방법 ····· 1
2. 연구사 ····· 2

Ⅱ. 몽유록과 환상체험의 특성 ····· 5
1. 몽유록 소설의 특성과 의의 ····· 5
2. 환상체험으로의 변모양상 ····· 11

Ⅲ. 작품의 정체성과 구조적 성격 ····· 16
1. 몽유록 시비 ····· 16
2. 환상적 액자구조 ····· 19

Ⅳ. 갈등의 대비적 양상 ····· 27
1. 억압과 자유의 대비적 공간 ····· 27
2. 안평대군의 이중성 ····· 34
3. 궁녀들의 변모와 갈등 ····· 39

Ⅴ. 비극적 미학 ····· 46
1. 불행초래의 외부적 장애요인 ····· 48
2. 절기의 비극성 ····· 53

Ⅵ. 결론 ····· 56
※ 참고문헌 ····· 58

ABSTRACT

A Study on the <Unyoungjeon>

Lee Seul - ki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s characteristics of <Unyoungjeon> and it is organized as follows.

When Chapters Ⅱ and Ⅲ are examined together, <Unyoungjeon> describes unreal and illusional experience in real time and space, not an illusion in dreams.

Here, Yuyoung meets Unyoung and Officer Kim. The soul of Unyoung meets the soul of Officer Kim in real space and time, not in a dream. <Unyoungjeon> is influenced by descriptive structures of Mongyurok novel, but in strictly speaking, it is not an illusional novel. It is one type of the novels with fancy frame structure. Its background is Spring and the full moon's day. It describes a lecture hall of Suseongkung below Mt. Inwang as a spacial and chronological background from the evening to the dawn when the full moon rises. Through such description, he is invited to the enchanted land from real time which symbolizes reproduction and real world which symbolizes the outlet to the another world, having illusional

experiences. The factor which leads Yu-young to illusional experience in rapture was alcohol. Because he was drunken, his soul was led into illusion.

Chapter Ⅳ examines aspects and characters of conflict. The royal court which is a main setting of conflict is a place where reasonable men are prohibited. It is a social and institutional confinement.

The characters in conflicts in the courts are Anpyungdaegun and court ladies.

Anpyungdaegun has positive character, thinking that talent is equal whether it is from men or women and teaches court ladies literary words while he has a negative character, eliminating human desires from court ladies. The court ladies are being awakened from pressure from Anpyungdaegun. The transformational progress is first found in Unyoung and Jran, which is expanded to other court ladies in Segung and Namgung, making the use of a debate on Wansa place. A conflcit is found in the process.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ourt ladies, and internal ones. The conflicts are those between royalty to Anpyungdaegun and desires of court ladies.

Finally, Chapter Ⅴ speculates tragic aesthetics. <Unyoungjeon> has been uncritically accepted without complete examination on tragic reasons. However it is looked upon as a novel which has tragic aesthetics through external disturbing factors and correlations between seasons and events.

That is, a tragedy is caused by Anpyungdaegun who restricts Unyoung because of his love to her and an external disturbing factor named Teuk that intends to collapse his master. The season when Unyoung meets officer Kim is ' Fall', not 'Spring' , which indicates a tragedy.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방법

<雲英傳>은 <주생전>, <위경천전>, <최척전>, <상사동기>등과 함께 17세기에 향유되었던 애정 전기 소설이다. 이 작품은 궁녀와 궁외 사람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궁녀인 운영과 선비인 김 진사가 조선 봉건 사회의 신분적 모순을 뛰어넘어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추구하다가 고전소설로서는 드물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다. <雲英傳>은 비극소설 가운데 한 작품으로 일명 <壽聖宮夢遊錄>또는 <柳泳傳>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한문본이 原本이었으나 훗날 한글로 번역 ·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운영전>에서 유영과 운영, 김 진사의 만남을 몽유현상으로 보아 대개의 연구가 <운영전>을 몽유록 소설에 포함시켜 살펴왔는데, 이는 이 작품의 철저한 분석이 행해지지 않은 차원에서 내려진 성급한 결론이라는 아쉬움이 남으며, 몽유록 소설임이 점차 부정되고 있는 현재에도 '<운영전>은 몽유록소설이 아니다' 라는 단정에 타당성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영이 수성궁에서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는 환상체험이 꿈을 통한 몽유의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한 몽유록 시비를 가리고 여기에서 내려진 "몽유록 소설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다. 즉 Ⅱ장에서 몽유록의 특성을 알아보고 시 · 공간적 배경으로 환상체험으로의 변모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이를 통해 몽유록 소설이 아닌 비현실적인 환상체험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환상적인 액자구조를 지닌 소설로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소설의 중심인 갈등에 대해 갈등이 일어나는 주 무대인 궁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안평대군의 이중성과 궁녀들의 변모와 갈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역사 속의 인물을 모델로 한

실존 인물 안평대군은, 재주에 있어서 남녀의 차가 없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궁녀들의 인간적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면도 보여준다. 중세적 유교 윤리 속에서 궁녀들은 완사 장소 논쟁에서 변모를 보인다. 그 과정에서 궁녀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자각하게 되고 안평대군에 대한 충과 그녀들의 본능 사이에서 갈등한다. 다음으로 Ⅴ장에서는 비극적 미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전에는 비극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온 감이 있는 <운영전>을 불행초래의 외부적 장애요인과, 계절과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운영전>은 비극적 미학의 특성을 가진 소설임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운영전>은 『三芳要路記』라는 표제 아래 <王慶龍傳>, <상사동기>와 함께 필사되어 있는 국립 중앙 도서관 소장본을 기본 자료로 한다. 이상구가 역주한 『17세기 애정 전기 소설』[1]에 실린 <운영전>이 국립 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했기에 이를 참고한다.

2. 연구사

<운영전>은 고소설에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비극적 결말 때문인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운영전>에 관한 연구는 안자산[2]을 필두로 하여 여러 문학사와 작품 해설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본격적인 연구는 大谷森繁[3]에 의해서이다. 그는 8종의 이본을 소개하고, <운영전>의 비극성, 역사성, 작자의 동기와 의도, 작자와 저작 연대 등을 연구하였으며, 문학적 가치와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1)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 전기 소설』, 월인, 1999.

2) 안자산, 『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3) 大谷森繁, 「<운영전>소고」, 『조선학보』37, 38호, 일본 천리대학교 조선학회, 1966.
『민족문화총서』2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같다.

첫째, 작자 및 저술 시기에 대한 것이다. 초기에는 작자를 <운영전>의 등장인물인 유영으로 보았다.[4] 그러나 정규복[5]은 이를 부정하여 '작자 미상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김동욱[6], 소재영[7]등도 '작자 미상설'을 따르고 있다. 저술 시기에 대하여는 김태준[8]은 유영이 선조 34년 (1601년)에 취몽간에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났다고 빙자하여 서술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大谷森繁[9]은 문화 유씨 족보를 뒤져 유영의 일생을 추적한 후, 선조 34년(1601년)부터 광해군(1609-1622) 초기 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배원룡[10]은 숙종 때의 선비 유영이 <운영전>을 <영영전>과 함께 숙종 13년(1687년)과 숙종 46년(1720년)사이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규복[11]은 유영 사후인 광해군 8년(1616년) 전후 시기로 보고 있으며, 소재영[12]은 안평대군이 복위된 영조 22년(1747년) 내지, 안평대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숙종대로 보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선조말부터 인조대 사이와 숙종 이후 영조대 사이로 대별할 수 있다.

둘째, 이본 연구에 대한 것이다. 이본에 대한 연구는 한문본 간의 차이, 한문본과 한글본의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셋째, 다른 작품과의 비교이다. 소재영[13]이 <상사동기>와 대비 고찰을 했으며,

---

4) 김태준, 『중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大谷森繁, 앞의책.
배원룡,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2, 국제대학교, 1981.

5) 정규복, <운영전>의 문제, 『고대 문화』 제 37 · 38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1970.

6) 김동욱, 한국단편소설선, 『한국고전문학대계』13, 민중서관, 1976.

7) 소재영, 「<운영전>연구 : 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통권 41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8) 김태준, 앞의 책.

9) 大谷森繁, 앞의 책.

10) 배원룡, 앞의 책.

11) 정규복, 앞의 책.

12) 소재영, 앞의 책.

13) 소재영, 앞의 책.

송정애[14]는 <태평광기>, <전등신화>, <금오신화>, <지봉전>, <영영전>등 국내외 작품들과 비교 고찰하였다. 또한, 김일렬[15]은 <구운몽>와 비교, 김영화[16]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하였다. 배원룡[17], 정해주[18], 박일용[19], 김낙효[20], 이성동[21], 손광주[22]등은 <상사동기>와의 비교 고찰하였다. 한편, 박일용[23]은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구성상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화기의 신소설인 이해조의 <금상태>를 참조하였다.

이렇듯 <운영전>에 대한 연구는 작자 및 저작 연대, 이본 연구, 다른 작품과의 비교 검토 등 여러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

14) 송정애, 「<운영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15) 김일렬, 「<구운몽>과 <운영전>의 비교 연구」, 『어문논총』9 · 10 합병호, 경북대학교, 1975.

16) 김영화. 「<운영전>의 대비적 고찰」, 『건국어문』13 · 14합집, 건국대학교, 1989.

17) 배원룡, 앞의 책.

18) 정해주, 「<운영전>과 <영영전>의 구성 대비」, 『연구논문집』 제2집, 성신여자대학교, 1984.

19)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국어국문학』98, 국어국문학회, 1987.

20) 김낙효, 「<영영전>과 <운영전>의 비교연구」, 『한국학논집』 제18집,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0.

21) 이성동, 「<운영전>과 <영영전>의 대비적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2) 손광주, 「<운영전>연구 : <영영전>과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3)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 시대의 애정 소설』, 집문당, 1993.

Ⅱ. 몽유록과 환상체험의 특성

1. 몽유록 소설의 특성과 의의

<운영전>은 유영이 수성궁의 서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나는 경험이 유영이 잠이 들어 꿈을 꾼 몽유의 상황인가, 현실의 시 · 공간에서 겪는 비현실적 환상체험인가에 따라 야기된 '몽유록 시비'가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몽유록 시비를 고찰하기 이전에 몽유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꿈을 소재로 한 설화와 夢記類가 성행하였고, 조선조에 와서 정치 · 사회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몽유록 소설이 발전되었다. 특히 몽유록 소설은 당시 사회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정치의 득실을 다룸으로써 우리의 소설사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이처럼 몽유록 소설은 당시의 시대상과 현실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의 학문세계와 治亂得失의 시공을 초월하여 폭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설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중인물의 설정방법이다. 그것은 인간이 소설 속에서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와 역사적인 존재이기에 작중인물의 창조방법은 작가의식, 시대적 배경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작품의 사건과 배경에 적합한 인물을 창조하여야 한다. 즉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사건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을 창조해야만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몽유록 소설은 몽유자를 통하여 당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을 작가의식을 통해 잘 드러내주고 있는 소설이다.

몽유록 소설에서 몽유자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몽유자의 성격과 역할은 몽중세계의 내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몽유록 소설은 현실세계와 몽중세계가 단절되어 두 세계가 양분되어 있지만, 몽유자는 두 세계에 등장하여 적

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몽중사건이 내용과 관계되어 몽중사건을 현실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 작가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몽유자는 사회현실에 불만을 가진 소외된 강개한 선비로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인물로서 그 성격이 변치 않는 평면적인 인물이다.

1) 담화형식

문학작품은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가와 독자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작가의 서술행위를 통하여 소설의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때 서술은 의사소통과 언어적 성질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발신자에 의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 이야기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며, 또한 전달내용은 언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몽유록 소설에서 담화형식은 발신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하고 수신자는 발신자의 내용을 받아들여 언어형식으로 기호화해서 전언한다. 전언하고자 하는 기호의 상징은 의미전달의 기능을 지닌 의미구조체이다.

환몽구조
↓
발신자 → 꿈의 기호화 → 수신자
↑
작가의 관념

꿈의 기호화는 복합의미구조체로 발신자는 꿈의 특성을 매체로 하여 심리적인 관계를 현실과 꿈의 인과적 세계를 통하여 작가의식을 표출한다. 그러므로 환몽구조는 의미전달의 기능을 지닌 의미구조체이다.

작가는 몽유자를 통하여 수신자에게 전언하는 과정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서술하고 있다.

몽유록 소설에서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대립적인 모순관계를 형성하는데 주체와 대상, 협조자와 반대자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큰 축으로 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때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주체란 반드시 객체(대상)와의 관련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욕망[24]에 의해서 연결된다. 몽유록 소설에서는 꿈과 현실의 두 중심축이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의미구조체이다. 작가는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꿈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꿈 : 현실, 불만충족 · 이상실현 : 사회 불만' 이라는 이중적 대립을 통해 작가는 꿈을 통해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순과 그에 따른 사회 불만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몽유록 소설의 의미 구조체에서 보이는 행위주의 대립관계는 몽중세계의 '만남'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몽중세계에서 '만남'의 공간적 배경은 소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남'의 시간적 · 공간적 배경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희적 공간에서의 '만남'은 울분토로나 자탄 그리고 이상세계 지향의 의식표출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사회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자연스럽게 표면화하고 있다. 즉 '만남'의 공간적 배경은 소설의 구성에서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작품에서 사건의 대립과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공간적 배경이며,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해소하는 장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는 토론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만남의 공간적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서술양상을 전반적으로 토론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토론양상은 현실과 이

---

24) Rene, Girard · 김윤식 역『소설의 이론』삼영사, 1986, pp.12-14.
르네지라르는 삼각형의 욕망이론을 통하여 문학과 사회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주체의 욕망과 욕망의 대상 그리고 욕망의 중개자는 삼각형구조로 도식화될 수 있다. 몽유록 소설에서도 사회상의 내면적 세계의 욕망을 표출한 서술구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상 : 욕망표출

중개자 : 꿈

주체 : 몽유자

상의 모순을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등장시켜서 작가의식을 표출한다. 이러한 토론식의 내용전개는 현실을 비판하거나 이상을 표출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그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몽유록 소설에서 '만남'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만남'은 주로 시연이나 주연의 자리에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몽유록 소설에서 '만남'의 기능은 작가의 현실세계에 대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하나의 매체로 이를 통하여 수신자는 의미확대와 창작의식을 고찰할 수 있다. 이때 '만남'에서 시연이나 연회를 매체로 사건을 전개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과 관계된다. 조선조 선비들의 만남은 주로 잔치나 주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를 통하여 자신의 의식을 표현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이 몽유록 소설에서 '만남'은 사회현실의 반영이며 작가 현실인식의 표현인 것이다.

2) 작가의 현실인식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꿈 서사양식의 출현은 민족의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사회성과 민족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꿈은 인간의 무의식세계를 통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모순된 현실과 그로 인한 불만을 꿈이라는 세계에 의지하여, 자아와 세계의 갈등구조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꿈은 무의식적이고 본능적,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소설로 변이되면서 소설양식에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즉, 꿈은 비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신작용으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려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꿈과 문학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꿈은 인간의 억압된 잠재의식을 표출하는 장치로서 소설에 변이되어 소외된 지

식인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양식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조선조는 봉건사회의 체계적 폐쇄 현상으로 꿈을 통해 자아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는 몽유록 소설이 성행하였다. 이처럼 몽유록 소설은 작가의 현실세계의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가공의 세계에서 몽유자의 사회적 의식을 표출함으로써 현실세계에서 경험한 소외와 좌절을 몽중세계에서 의식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신적인 활동을 해소시켜주는 보상심리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때 몽유록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입몽 이전, 몽중세계, 각몽의 삼단계의 환몽구조의 형식은 단순한 소설 전개과정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작가의식을 독자에게 형이상적인 세계를 통하여 인간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 환몽구조의 구성에서 현실세계와 몽중세계는 표층구조에서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심층구조로 보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몽구조의 의미기능 단락은 '현실불만 - 욕구충족 - 욕구해소'로 구성되어 있고, 플롯은 하나의 스토리 전개의 한 방법으로 형성되지만 몽유자 행동은 인과관계로 연계되는 논리구성이다.

보편적으로 꿈은 황당무계한 공상으로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현실과 꿈의 대립적 양상을 띤다. 이것이 작가에 의해 형식적, 양식적인 장치로 사용됨으로써 꿈에 의해 현실의 세계가 제시되므로 당시대인들의 삶의 체험과 의식이 문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꿈의 세계는 갈등과 이상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유록 소설에서 꿈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갈등과 이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며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렇게 꿈의 장치를 통해 현실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의식세계는 당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만을 꿈에서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회에 대한 항거를 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이용한 우의적인 수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의도에서 작가의 세계관이 나타난다.

몽유록 소설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부정에서 벗어나 꿈이라는 내부세계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사회와 현실세계로부터 단절되는 양상을 가져오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상황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혼란되고

억압된 현실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저항과 함께 현실비판의식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꿈의 세계를 통해 현실의 세계에서 드러난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상세계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몽유록 소설에서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몽유록 소설에서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에 대한 문제를 표출해 왔다. 그러나 봉건사회에서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의식을 직접 서술하지 못하고 우의적인 양식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우언은[25] 불신시대의 독자, 청자심리를 가미한 시대적 산물로 우리 문학사에서도 고대사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소설은 근본적으로 사회로부터의 인간소외와 관계있는 것으로, 소설도 사회학에서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세계와 그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적응양상과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욕구와 관계된다.[26] 문학작품은 그것이 생성된 사회상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인간세계에 감추어진 모습들을 표현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문학양식의 출현은 문학적 전통과 사회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꿈의 원초적인 특성은 현실체험을 무의식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상화된 것으로, 이러한 특성은 문학창작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꿈은 문학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져 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몽유록 소설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꿈 관념을 소설로 형상화하여 사대부들의 의식세계를 서술하는 전형적인 문예양식으로 발전되었다. 이 서사양식은 고전소설 초기부터 창작되어 고전소설의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과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면서 고전소설의 수준을 확대하여 후대 풍자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몽유록 소설에 영향을 주면서 계승 발전하였다.

---

25) 안병설, 「우언의 문학적 수용에 대하여」, 『국민대학교 논문집』 제12집.

26) Alan Swingewood, 『문학과 사회학』, 정혜선역, 한길사, pp.10-11.

2. 환상체험으로의 변모양상

다음으로 현실과 비현실의 사이에서 유영과 김 진사와 운영이 만나고 있는 시 ·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계절로는 봄이며, 달(月)로는 보름(望)이다. 또한 하루 중에서는 보름달이 뜬 저녁때부터 새벽녘까지의 밤의 시간이다.

이재선은 "순환하는 사계의 단위 중에서 봄은 죽음과도 같은 긴 겨울 동안 얼어 붙었던 찬 대지를 녹이고, 마르고 움츠렸던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에의 꿈틀거림을 시작하게 한다. 대지의 지모신이 생성의 여성을 갱신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몸은 흔히 탄생 · 재생 · 사랑 · 상응(만남)의 의미를 지닌 계절이다."[27] 라고 한 바와 같이 즉 유영은 재생의 시간인 봄에, 지상에 재생하여 모습을 드러낸 죽은 이들의 혼령을 만난 것이다.

또한 "밤은 지각의 현상학에 있어서 청각과 촉각이 주도되며, 꿈과 추억과 환영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사색과 정신이 성숙해 가는 시간이며, 낮을 잉태하는 시간이며, 속된 낮의 시간에 비해 성스러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28] 밤은 인간 부재의 시간이요, 백귀야행의 시간으로서 유명계의 귀신과 역신과 도깨비가 함부로 날뛰는 죽음과 공포와 몽환의 시간이다. 밤길에는 흔히 귀신과 도깨비를 만난다고 믿는다.

또 조상의 제사는 반드시 새벽 닭이나 절간의 새벽 종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지내야만 조상신이 감응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새벽 닭소리나 절간의 종소리는 귀신과 도깨비가 지배하는 밤의 시간의 만기가 되고 인간의 시간으로 복귀하거나, 교대되는 시각을 나타낸다.

M. Eliade에 의하면 "달의 모습은 언제나 변한다 - 나타나고 커지고 기울고 사라지고, 사흘 동안의 어두운 밤이 있고, 그 밤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나고 - 이 같은

---

27) 이재선, 『한국 단편 소설 연구』, 一潮閣, 1975, pp.95-103.

28) 이재선, 앞의 책, pp.52-53, p.284.

월면(月面)의 변화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순환 개념을 정교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고대의 묵시록과 인류 창생설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실증할 수 있다. 즉 홍수나 장마가 탈진되고 죄악에 가득 찬 인류에게 종말을 가져오고, 다시 새로운 인류가 나타날 때, 흔히 그 파멸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류는 신화적인 "조상"이나 달 동물(Iunar animal)로부터 태어난다. 이 신화들의 이 같은 달 특성은 이들 신화군에 대한 성층학적(成層學的)분석을 통하여 관찰해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달의 리듬이 짧은 간격(주, 혹은 날)만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지속적인 기간에 대해서도 원형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인간의 "탄생", 그의 성장, 노쇠("낡은 것") 그리고 사라짐은 주나 월의 기간과는 전혀 다른 확대된 지속이지만, 달의 순환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달의 순환과 인간의 리듬과의 일치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9] 고 한다.

그리고 "달은 '중단있는 영생' 즉 한 개체가 죽기는 죽되, 죽음을 거치고는 거듭나기를 영원히 되풀이하는 상태를 가장 환상적이고 현상적이며, 완벽하게 나타내는 존재이다. 만월의 둥근 형상, 그믐달과 초생달의 조각진 형상, 반달의 형상까지의 연속된 변화가 나선으로 도형화 되나, 이 나선형은 원이 형성되어가는 생명력의 발전을, 다시 그것이 소멸되어 가는 생명력의 소실을 가장 탄력있고 설득력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30]

이러한 봄과 밤과 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난 시간적 배경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사색과 정신이 성숙 되어가고 환영을 떠올리는 성스러운 밤에 죽었다가 거듭 태어나, 보름달이 뜬 시간에 지상에서 사라졌으나, 또한 그 사라짐이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는 순환하는 자연의 한 존재인 인간의 재생 혼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얼마 후, 지상인간의 시간으로의 복귀

---

29) Me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 鄭鎭弘 譯,『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6, pp.124-128.

30) 김열규,「우리문학의 재생 모티브-신화적 재생 상징, 그 형상과 원리」,『문학과 비평』, 1989, 봄, p.287.

를 고하는 산 닭의 울음소리에 술이 깨어 유영은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과 헤어지게 된 것이다.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과 만나는 공간적 배경은 인왕산 아래 수성궁의 서원이다. 수성궁의 작품 서두에서 펼쳐진 정경묘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인왕산 아래에 있으며, 산천이 수려하고 인왕산의 한 줄기가 굽이쳐 내려오다가 수성궁에 이르러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표현되고 있다. 또한 서원의 모습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그윽한 곳에 자리잡은 꽃향기 은근하고 풀, 그림자 드리운 연못이 있는 환상적인 곳이다.

서구인들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산을 깎고 물줄기를 돌린 후 건물을 축조함에 비해 우리의 사찰이나 궁전은 산천의 한 자락을 끼고 지어져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운 듯한 형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성과 속의 공간에 대해 "거룩한 장소, 즉 산은 공간의 균질성에 단절을 가져온다. 이 단절은 하나의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로의 이행(천상에서 지상으로, 그 역으로 지상에서 지하로)을 가능케 하는 출구로써 상징된다. 천상과의 교섭은 몇몇 이미지들, 이를테면 기둥(우주의 기둥참조), 사다리(야곱의 사다리 참조), 산, 나무, 덩굴 등등 가운데 하나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의 축에 관련된다. 세계(우리의 세계)는 이 우주적인 축을 둘러싸고 펼쳐지며 따라서 이 축은 '가운데'에,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물은 가능성의 우주적인 총계를 상징한다. 창조의 원형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파도의 한 가운데서 갑자기 출현하는 섬이다. 또 한편으로, 물 속에 잠기는 것은 무형상태로의 회귀, 존재 이전의 미분화된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물의 상징이 죽음과 재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과 물은 축소된 세계이면서 동시에 낙원이요, 축복의 원천이며, 불멸의 장소인 고로 완전성과 고독을 결합하여 완성에 도달한 장소이며, 세속적 세계와 단절된 고로 신비적 힘을 띨 수 있는 공간이다."[31]라는 것

31)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聖과 俗,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1983, p.30, 100, 118.

이다.

또한 “사원이나 궁전은 우주적 산의 묘사로서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곳이며, 속적 공간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공간이며 초월적 공간으로 인간에 있어 낙원에의 원망을 표상한다.”[32] 라는 것에 있어 수성궁이라는 배경적 요소를 볼 수 있고, 한편 “이들 주인공들이 만나는 시간은 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로,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재생의 시간이며, 또한 幽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다. 또, 이들이 만나는 장소는 인왕산 기슭의 수성궁의 서원인데, 이곳은 곧 천상적 공간인 동시에 지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이중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다.”[33]

이렇듯 유영은 인왕산 아래 수성궁의 서원이라는 시 · 공간적 배경에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곧 산과 궁은 성스러운 공간과 낙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자와의 교환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몽중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34]고 하지만, 유영은 분명 재생을 상징하는 현실적 시간과 이계로의 출구를 상징하는 현실적 공간에서 선경으로 초대되어 환상체험을 겪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영의 육체 이탈을 통해 선경을 체험하는 기회는 단순히 수면중의 꿈속에서만 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각성 중에도 여러 가지 글기를 얻을 수 있다. 즉, 종교적 회심의 상태에서, 기도라는 절원의 형식에서, 질병이라는 육체의 위치에서, 황홀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모든 요인 - 흔한 수단으로 음주하는 방법-등을 통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 인류의 원초적 고향을 향한 영혼의 자유로운 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술은 그 자체 하나의 geist(精)로 인간의 영혼을 혼계로 인도하는 매개물이다.”[35]라고 한 바와 같이 유영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영이 운영

---

32) M.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종교 형태론』, 이은봉 역, 형설출판사, 1982, pp.398-419.

33) 성현경, 『운영전의 구조』, 형설출판사, 1978, p.129.

34) 김장동, 『조선조 소설의 작품론 고』, 형설출판사, 1986, p.85.

35) 황패강, 『한국 서사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7, pp.86-93.

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난 것은 꿈을 통한 몽유현상이 아니라 ‘재생과 만남’을 상징하는 현실의 시간적 배경과 ‘지상 · 천상 · 지하’가 교통하는 우주의 축을 상징하는 현실의 공간적 배경에서 ‘술’이라는 혼계 인도의 매개물을 통해 황홀한 상태에 빠져들어 비현실적 환상체험을 엄연한 현실에서 실제로 겪었으므로 이 작품을 몽유록 소설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이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즐겨 사용하던 문학형식인 몽유록에 <入眠-覺>의 과정을 투입하여 현실적인 스토리를 액자형식을 빌어 환상적으로 허구화하는 소설 구성기법이다.

Ⅲ. 작품의 정체성과 구조적 성격

1. 몽유록 시비

먼저, 유영이 수성궁의 서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나는 경험이 유영이 잠이 들어 꿈을 꾼 몽유의 상황인가, 현실의 시 · 공간에서 겪는 비현실적 환상체험인가에 따라 야기된 '몽유록 시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고찰에서 내려진 "몽유록 소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 고찰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바, 만남의 시 · 공간적 배경과 환상체험으로의 인도요인 등을 다루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한다. 먼저, 유영을 중심인물로 살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체험한 비현실적 환상공간이 꿈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몽유록 소설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논의가 있어 왔다. <운영전>은 김태준이 표제를 일명 <수성궁몽유록>이라 밝힌[36] 이래 그 후의 소설사에서는 이를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많았으나, 김기동은 "<수성궁몽유록>이 원명이라 하고 <운영전>을 몽유소설로 유형분류"[37]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수성궁몽유록>이라는 표제의 이본은 현재까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근거없는 별칭으로 <운영전>을 무비판적인 몽유록 소설로 다룸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외에도 유영의 체험을 몽중담으로 보아 몽유록 소설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정태복은 "<운영전>을 <수성궁몽유록>이라 함은 잘못인데, 이처럼 불리게 된 이유는 <운영전>이 <대관제몽유록>이나, <원생몽유록>, <금산사몽유록>, <강도몽유록>과 함께 일종의 몽유담으로 엮어진 데에서 기인한다."[38]고 한 반면, 소재영은

36)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3, p.71.
37) 김기동, 『한국 고전 소설 연구』, 교학연구사, 1983, pp.93-97.
38) 정태복, 「운영전의 문제」, 『고대 문화』11, 고려대, 1971, p.115.

“<운영전>은 몽유록의 형태를 빌었으나, 다른 몽유록류가 꿈에 직접 몽유하여 행동함에 비해 유영이 술에 취해 누웠다가 깨어난 밤에 김 진사와 운영의 죽은 영혼을 만나 그들의 장황한 사연을 듣고 액자를 장치하여 간접몽유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원생몽유록>, <금산사몽유록>, <강도몽유록>과 같은 다른 몽유록에 비해 하나의 단계를 더 거치는 셈이라, <운영전>만은 작품의 성질상 이들 몽유록과는 구분하여 다루어야 할 것 같다.”[39]고 하였다.

여기에서 유영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몽유록의 기본 구조와 동일한 패턴이고 운영과 김 진사가 돌아가며 자신들의 애절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토론형식을 띤 서술 방식은 몽유록이 지닌 서술 구조와 유사하며,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몽유자 유영의 성격 설정이나[40], 입몽 이전에 몽유자가 자신의 회포를 시로 표출하는 수법과 김 진사, 운영이 모여 시연을 갖는 점, 안평대군 등 역사적 실재 인물이 등장하는 점, 몽유세계에서 이야기된 내용이 글로써 몽유자에게 전해지는 점 등은 <운영전>과 몽유록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운영전>은 몽유록 소설이 아니며, 몽유록의 전통 아래, 몽유록의 서술 구조나 모티프를 차용하고는 있으나, 몽유록의 토론형식을 단편적인 대화의 나열로 그치게 하지 않고 사건의 인과적인 계기로 짜여진 서사적인 이야기로 승화시킨 점과 다른 고소설에 비해 무녀와 特 등 성격을 철저히 부각한 인물 설정으로 사실성을 획득한 점에서 몽유록의 한계를 두 차원 뛰어 넘는 작품”[41]이라는 고찰도 있다.

이와 같은 몽유록 소설의 시비가 있는데, 필자는 <운영전>이 몽유록 소설의 서술 구조의 경향을 받고는 있으나, 엄밀히 말해 몽유록 소설은 아니며,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환상적인 액자구조를 가진 소설의 한 형태라 본다.

---

39) 소재영, 『고소설 통론』, 이우출판사, 1983, pp.388-390.

40) <운영전>, p.261.
而衣裳藍縷, 容色埋沒, 自知爲遊客之取笑, 足將進而趑趄者, 久矣.

41) 신재홍, 「몽유록의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57-65.

구체적인 상황의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영이 수성궁의 서원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시를 읊조리고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정신을 잃는데, 잠시 후 술이 깨어 보니 유객들은 모두 흩어져 가고 산이 이미 달을 吐해 놓았으며, 저녁 안개가 버드나무를 감싸 돌며 잔잔하게 바람이 일고 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소리가 바람에 실려 온다. 유영은 말소리를 따라가서 한 소년과 절색미인을 만나는데, 그들이 곧 150여 년 전 바로 이곳 수성궁을 배경으로 애절한 사랑을 나누다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삶을 마감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인 것이다.

유영은 그들과 어울려 술에 취하고, 시에 취하고, 그들의 비연적 사랑의 회고담에 취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유영은 그들과 마신 술로 선잠이 들었다가 잠시 후 산 닭이 우는 소리에 술에서 깨어보니 구름연기 자욱하고 새벽빛이 창망한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자취는 볼 수 없고, 다만 김 진사가 기록한 책자만 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보아 대개의 몽유록 소설에서는 몽유자가 잠이 들어 꿈속에서 이계를 경험하고 잠이 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영은 수성궁의 서원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누웠다가, 잠시 후 술이 깨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마신 술로 다시 취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상황이라 유영의 이계 체험을 몽중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

유영은 엄연히 현실적인 시 · 공간 즉, 술이 취했다가 깬, 달이 뜬 저녁부터 새벽빛이 창망한 시각까지 수성궁의 서원이라는 배경에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을 만나 비현실적인 환상체험을 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 환상체험을 현실적으로 겪은 것이다. 유영이 몽중과 같은 비현실적 시 · 공간에 든 것이 아니라 혼령인 운영과 김 진사가 유영이 사는 현실적인 시 · 공간에 듦으로써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유영이 그들을 만난 후 유영이 사는 현실적 시 · 공간에 그들이 회고하고 기록한 책자가 남아 있음으로도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몽유자가 꿈속에서 이계에 들어 그곳의 시 · 공간을 살다가 꿈에서 깨

니 머리가 하얗게 세었더라는 몽유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42]

2. 환상적 액자구조

<운영전>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특질이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에 의해 비극적 구조,[43] 환혼구조,[44] 이원적 구조,[45] 그리고 액자구조[46]등으로 각각 파악되어 왔다.

<운영전>은 유영이란 한미한 선비가 안평대군의 사궁이었던 수성궁의 춘경 속에서 취몽 중에 겪은 이야기로서, 유영의 꿈이라는 큰 액자 속에 안평대군의 성시지사와 김 진사의 상회지유를 담은 작은 액자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전>의 핵심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선비 유영이 수성궁에 놀러 가다.
② 유영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다.
③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④ 안평대군이 사궁에 운영 등 10명의 궁녀를 두다.
⑤ 문사인 김 진사가 안평대군과 시를 화답하다가 운영을 만나다.
⑥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궁 밖 출입을 금하는 엄명을 내리다.
⑦ 운영과 김 진사가 사랑에 빠져 연서를 주고받다.
⑧ 김 진사가 서궁 담을 넘어들며 운영과 밀애를 나누다.

---

42) 일연의 『삼국유사』권 3에 나오는 "조신설화"에도 이러한 모티프가 나온다.
43) 정해주,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44) 송정애, 「<운영전>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45) 성현경, 「<운영전>의 구조」, 새문사, 1978.
46) 김일렬, 「<구운몽>과 <운영전>의 비교 연구」, 『어문논총』9, 10, 1975.

⑨ 운영이 탈출을 위해 의복과 보물을 궁 밖으로 옮기다.
⑩ 김 진사의 노복 特이 흉심을 품다.
⑪ 特의 발설로 인해 궁중 재보의 반출이 대군에게 알려지다.
⑫ 안평대군이 서궁의 궁녀들을 문초하고, 운영을 별당에 가두다.
⑬ 운영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자결하다.
⑭ 김 진사가 운영의 제를 지낸 후 죽다.
⑮ 두 사람이 자신들의 기록을 후세에 전할 것을 부탁하다.
⑯ 유영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책자만 놓여 있다.
⑰ 유영은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생을 마치다.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유영이 수성궁에 놀다 잠이 듦.(①, ②)
(2)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유영이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③-⑮)
(3) 꿈을 깬 후 유영의 행동 (⑯, ⑰)

이와 같이 <운영전>은 액자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액자 밖은 유영의 이야기이고, 액자 안은 유영의 꿈 세계이다. 유영의 꿈 세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에게 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이다. 유영의 꿈 세계를 제1액자라 한다면,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제2액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액자 형식을 통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앞의 스토리를 기초로 <운영전>의 서술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서술자의 등장
② 유영 등장 - 入眠-覺 <제 1 액자 열림>
③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남
④ 운영의 진술 <제 2 액자 열림>

⑤ 서술자의 개입
⑥ 김 진사의 진술 <제 2 액자 닫힘>
⑦ 유영이 운영 · 김 진사와 헤어짐
⑧ 유영 퇴장 <제 1 액자 닫힘>
⑨ 서술자 퇴장

이 소설은 ①②-⑧⑨의 외부구조 속에 ③-⑦의 내부구조를 품고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유영이라는 참관인의 이야기 안에 김 진사와 운영의 과거 로맨스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설을 우리는 흔히 '액자소설'[47] 이라고 한다. 위의 도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1액자' 속에 또 다른 '제2액자'에서 서술된 이야기가 작품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본격적 스토리라 할 때, '제1액자'는 본격적 스토리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현실담으로서 본격적인 스토리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액자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①에서 ③까지 서술자가 등장하고 참관인이 등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서사적 객관성을 갖추어 주는데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즉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곳은 주인공들이 생존했을 당시의 사건들을 담은 ④⑤⑥인데 액자장치와 작품 배경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생인과 사자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품 전후에 보이는 '入眠 - 覺'이라는 부분은 작품에서 완벽한 액자의 구실을 하며 망령들의 애정담을 현실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킨다. 한편 이들 주인공들이 만나는 시간은 동산에 달이 떠오르는 저녁으로부터 광명이 동터오는 새벽까지로서,

47) 액자소설은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단일소설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나 일련의 여러 이야기를 包封하는 이야기'의 구성형식으로 이야기의 외측에 또 하나의 서술자의 시점을 인정함으로써 이중의 인물시점의 서술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액자소설이라는 구성 양식은 소설기법으로서 보편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하나, '소설형태의 원형'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즉, 서술의 근원 상황에서 이미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술방법의 소박한 원초적 형식인 것이다. 한국문학에서 액자의 기존형태는 설화에서 그 잔상을 찾을 수 있다. 그 구연과정을 보면 ' ~잘 살았더란다' 또는 '~했다고 한다' 식의 간접화법으로 이것이 바로 액자 형태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이재선『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pp.95-103.

이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고 재생의 시간이며 또한 幽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인 것이다. 또 이들이 만나는 장소는 인왕산 기슭에 자리잡은 수성궁의 서원인데, 이곳은 곧 천상적 공간인 동시에 지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이중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48]

이 '入眠 -覺'이라는 액자장치에 대한 논자들의 제 논의를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의견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김일렬은 유영과 운영 일행과의 만남을 현실속의 한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入眠 -覺'이라는 장치를, 생인이 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독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모호한 장치로 파악한 것이다. 즉 ④-⑥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유영의 꿈속의 사건이지만 꿈으로 넘어가는 대목을 아주 환상적으로 표현하여 꿈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흥미의 감소를 막고 독자로 하여금 신비로운 분위기에 젖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꿈속에서 얻은 책이 현실적인 증거물로 남게 된 것이 비현실성을 보여 주기도 하나 그는 이것이 오히려 꿈과 현실 사이의 모호함과 더불어 작품에 신비감을 더해 주고 서사적 객관성을 강조해 준다고 이해한다. 또한 증거물로 인해 작중세계와 현실을 연결 그 진실성을 증대시키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이런 이야기는 전설의 패턴에 그 근원을 둔 것이라는 것이다.[49]

윤해옥은 <운영전>을 몽유록이나 몽자류 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종래의 논의에 대해, 이 작품이 일반적 몽유록계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미의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50]

몽유록은 몽유자가 몽중세계에서 체험한 것을 기술하는데, 사건의 전개는 반드시

---

48) 성현경, 앞의 책, p.219 .

49) 김일렬, 「운영전에 나타난 사랑과 世界觀的 苦悶」,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pp.74-75.

50)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운영전>이 <수성궁몽유록>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워진다는 점에서 흔히 몽유록류의 소설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21종의 이본 가운데 <수성궁몽유록>의 명칭으로 전하는 이본은 발견할 수 없다.

몽유자의 꿈을 매체로 하여 '현실 → 꿈 → 현실' 이라는 일관된 구조로 진행된다. 따라서 몽유록계 소설들은 '入夢'과 '覺夢'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현실세계와 몽중세계가 확연히 구분되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작자는 몽중세계에서 몽유자의 체험을 통해 현실을 비판, 풍자하고 현상세계의 건설을 지향함으로써 현실의 기존 질서를 전도하는 역설적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인 전체적 사건 전개의 도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운영전>은 이같은 꿈과 현실의 이원적 대립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본 작품은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몽유, 즉 몽중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과 꿈의 세계를 연결하는 '入夢 - 覺夢'이라는 장치가 아니라, 현실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작품 전후에, 유영의 '入眠 - 覺'이라는 부분이 작품에서 완벽한 액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51]

한편, 이와 같은 구조적 장치를 통해 사자들의 이승에서의 애정담은 현실적인 차원으로 환원된다. 운영과 김 진사와의 애정담은 몽유록계 소설에서 서술되는 몽중세계와는 달리 너무나 인간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하나의 독자적인 소설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너무나도 있음직한 사실적인 인물들이다. 영웅적 초월의 힘을 지닌 완벽한 재자가인이 아니라, 능력도 있으나 결함 또한 무수히 지닌 인물들이다. 대개의 이조소설들의 등장인물들이 보통 평범함보다는 우월함을 지닌 인물들이 대부분이어서 현실감이 없는 절대적인 미, 추, 선, 악의 소유자들인데 반해 <운영전>의 인물들은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절대성이 없는 불완전한 인물들로서 인간적 체취를 물씬 풍기고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겪은 사건도, 결국 그들이 인간답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외부세계와의 연결이 차단된 궁중에서 사랑을 실현하고 행복을 향유하고 싶던 한 부자유스런 신분의 여인이 결국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각 등장인물에의 뚜렷한 성격 부여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인물

51)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84, 1980, p.127.

의 설정,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등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차원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 나아가 이 작품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의 발생 전개과정을 통해 당시대사회가 내포한 諸 문제를 표면화 시키고 있다. 인간적 본성을 무시한 채 유교적 윤리, 충, 효, 열의 일방적인 강요와 애정 추구의 부자유스러움, 그리고 계층 상호간의 높은 벽이 그것이다.

이제 작자가 이 작품에서 '환상적 액자구조'라는 소설형식을 채택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액자소설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비교적 짧은 내부 이야기를 내포하는 소설의 구성 형식임을 상기할 때, 이러한 간접적 형태의 소설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논자에 따라서는, 안평대군이라는 실제인물 -세조이후 국적으로 평가되다가 훗날 복위된-을 소설에 등장시켜 언급했을 때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 또 작품 전후에 드러나고 있는 회고조의 분위기와 사랑의 비극적 종말 등 작품 전체의 페이소스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독자들에게 좀더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한 작자의 배려라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궁녀와 궁외 인물간의 로맨스를 유영의 3인칭 관찰자 서술을 통한 보고적 기술 태도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액자소설의 형태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52]

또한 그 같은 사건을 사실적인 수법으로 묘사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작품 전후에 '入眠 - 覺'의 과정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 경직된 사회인식을 피하기 위해 당시 사대부들이 즐기던 표현기법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볼 수 있다.[53]

한편 우리는 이 작품에서의 '액자'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실적인 문제를 환상적인 세계로 허구화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이중액자 구성에 있어 내부구조 '제2액자'에서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되어진 주인공들

52) 박태상, 앞의 책, p.190.
53) 윤해옥, 앞의 책, p.128.

의 고백적 기술 태도와 외부구조 '제1액자'에서의 유영의 3인칭 관찰자 서술방식을 통한 보고적 기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때 액자장치는 주인공들의 시점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54] 셋째, 작자는 액자 장치를 통해 제시한 환상세계에서 사회규범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다가 죽어간 인간의 삶을 정당한 것으로 표출시킴으로써 기존 가치평가의 모순을 제시하고 있다.[55] 그런데 위의 둘째 항에서 보인 '자연스런 시점의 이동'은 주목할 만 하다. 이 조소설에서 가장 명료한 '폐쇄적 액자소설'[56] 이라 일컬어지는 <운영전>이 꿈과 같은 환상 액자 속에 비련을 다룬 두 개의 긴밀한 내부소설을 내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 '시점의 다원화'[57] 라는 소설 기법이 보이는 것이 놀랍다. 현대 소설에서 주인공의 등장에 따라 시점이 이동하는 다원화 형태에 비하면 아직 아주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으나, 현대 소설이 갖는 특징적 성격으로서 거론되는 '시점의 다원화'가 <운영전>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것이다.

즉 Prologue라 할 수 있는 제1액자의 도입부분에서는 유영이라는 관찰자의 거리를 지닌 인물이 3인칭 작가 전지적 시점으로 등장하였고, 운영의 고백적 이야기는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사랑의 열병과 심층심리의 내면세계를 묘사한다. 그리고 운영이 죽고 이야기를 더 이상 이끌어 갈 수 없게 되자, 3인칭 작가 전지적 시점으로 슬쩍 돌아가 김 진사에게 초점이 맞추어 진다. 다시 김 진사의 내밀한 이야기가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써 진행되다가 김 진사마저 죽자 다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은 '시점의 다원화'는 당대로 보아 가히 혁신적인 소설의 기법이었다. 또한 이 소설의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이야기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또 그 내부소

54) 박태상, 앞의 책, p.190.
55) 윤해옥, 앞의 책, p.130.
56) 이재선, 앞의 책, p.107.
57) 김장동, 「<운영전>의 시점과 時制意識」, 『한국문학연구』 제8집, 동국대학교, 1985, p.104.

설이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단편소설로서의 완결된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볼 때, 액자장치 즉 Prologue와 Epilogue는 액자소설 특유의 기법임과 동시에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갈등의 대비적 양상

1. 억압과 자유의 대비적 공간

갈등의 주무대인 궁궐에 대해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중심지향성이 강한 소설들에서 여성 인물들에게 집 바깥은 부정적인 징표를 지닌 곳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갈등이 해결된다. 갈등의 해결은 곧 이들의 귀환과 맞물려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지리적 궤적은 소설 전체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순환적이다. 구심적인 인물들은 기존의 질서, 여성들에게 지워진 굴레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고난이 닥쳐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집을 자신들의 보호처로 여기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집이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여성은 당연히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58]

<운영전>과 대비해 보기 위하여 먼저 <사씨남정기>에서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집안과 집밖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집을 중심으로 안과 밖의 이미지는 중심지향적인 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는 대체로 이와 비슷하게 인식된다. 여성 인물의 행동반경이 집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갈등은 언제나 집안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집에 대한 인식은 거의 같거나 조금 다르다.

---

58)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사씨남정기>에서 사씨의 집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다. 집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며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다. 반면에 집 바깥은 언제든지 강포의 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며 힘들게 일해서 생계를 꾸려가야하며, 가족과 흩어져 외롭고 피곤한 공간이다.

집 안	집 밖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	유배지(벌받는 곳)
안전한 곳	위험한 곳[59]
평안한 곳	수고로운 곳[60]
가족이 함께 있는 곳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곳[61]

반면에 교씨는 원심적 인물로서 집을 벗어나려는 인물이다. 소설의 중심지향성은 여성의 원심적인 성향을 부정적으로 그린다. 여성이 집을 마음대로 떠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남편이 아닌 간부를 따라서 가는 것은 교씨의 다른 악행과 더불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대표적인 음행이다.

여성의 출타는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집 바깥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행실이 나쁜 여자나 하는 소행이고, 이런 나쁜 행실을 하는 여자가 아니면 집안에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집을 지키고 떠나는 행위는 도덕적인 평가와 연결된다. 즉 구심적인 여성은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원심적인 여성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중심 지향적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집안의 천사가 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갈 뿐만 아니라, 집밖은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며, 여성이 스스로 집밖으로 나가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을 구속하는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공통적인 것인데도 유독 조선 시대 여성들에게는 윤리적 규범에 의하여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염집의 여성은 가장의 허가 없이는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궁녀 또한 궁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 규범을 어기

59) 사씨가 쫓겨나서 시부모 묘하에 가 있는 동안, 동청은 두부인의 편지를 만들어 사씨를 유인하고, 냉진으로 하여금 겁탈하게 할 계획을 세운다.

60) 사씨는 시부모 묘하에 가서 남의 옷품을 들고 베를 짜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패물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61) 사씨는 쫓겨나서 남편은 물론이고 아들 인아와 이별한다.

는 행위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추기거나 하는 자는 악인으로 간주된다.

常下令曰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女之名 則其罪亦死.[62]

그러나 궁녀들은 자신들도 인간적인 욕구와 감정이 있고 단지 강제로 억압당하여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묻고 항의한다.

銀蟾曰 "男女情欲 稟於陰陽 無貴無賤 人皆有之. 一閉深宮 形單隻影 看花掩淚 對月消魂. 梅子擲鶯 使不得雙飛 簾帳燕幕 使不得兩巢 無他 自不勝健羨之意 妬忌之情耳. 一踰宮垣 可知人問之樂 而所不爲者 豈力不能 而心不忍哉 唯畏主君之威 固守此心 以爲枯死 宮中之計. 今無所犯之罪 而欲置之死地 妾等黃泉之下 死不瞑目矣."[63]

은섬의 '죄가 없다'는 표현은 운영의 죄를 자신에게도 연대해서 묻고 함께 죽이려고 하는데[64] 대한 항의의 뜻으로, 즉 '운영의 잘못을 우리에게까지 연좌하는 것

62) <운영전> p.264.
항상 대군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
p.104.

63) <운영전>, p.287.
은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나온 것으로 귀하고 천한 것의 구별이 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 깊은 궁궐에 갇힌 이후 그림자를 벗하며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달을 대하면 넋이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화 열매를 꾀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으로 막을 쳐서 제비 두 마리가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 스스로 쌍쌍이 노니는 꾀꼬리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궁궐의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하며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해서 그러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궁중에서 꾀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굳게 지키다가 말라죽는 길뿐입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사지로 보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 아래서 죽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p.151.

64) <운영전>, p.286.

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섬의 발언이 앞부분에서 자신들의 인간적 정욕을 억압당한 현실을 탄식하고 안평대군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은섬의 '죄가 없다'는 표현은 운영의 행위를 포함하여 운영을 감싸고 도와 준 자신들 모두의 행위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평대군적 질서는 중심지향성이 강한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감금과 억압의 공간으로서의 집의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운영과 다른 궁녀들은 이러한 안평대군적 질서에 반발한다. <운영전>에서는 집의 안팎에 대한 인식이 중심 지향적 소설의 것과 완전히 바뀐다. 운영과 자란 등의 궁녀가 머무르고 있는 수성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자유로운 표현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인간의 감정을 억압하는 곳으로 비판된다.[65] 궁녀들에게 수성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66]

궁안	궁밖
감금된 곳	자유로운 곳
이성간의 사랑이 금지된 곳	사랑이 허용된 곳

大君捉致西宮侍女五人于庭中 嚴俱刑杖之具於眼前 下令曰 "殺此五人 以警他人." 又敎執杖者曰 "勿計杖數 以死爲准."

65) 서술자가 형상화한 수성궁은 아름다운 곳이고, 안평대군이 궁녀들의 재능도 인정해 준 곳이며, 비단과 음식과 보화가 넉넉한 곳이다. 그러나 인물들의 발언 속에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훨씬 강하게 드러나 있다.

66) 김연숙, 앞의 책.
<위씨절행록>의 경우도 집은 위씨에게 있어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를 억압하는 곳이다. 시가는 자신이 효성을 다해서 어른을 모셨으나 자신을 쫓아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친정 또한 자신의 뜻과 달리 강제로 개가를 시키려 하므로 자신이 편히 머무를 곳이 못된다. 이에 위씨는 가출을 하게 된다. 위씨는 다시 시가에 가서 자신을 의탁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가 문전 박대 당하고 내쫓겼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와 친가는 어느 곳도 위씨에게 편안하게 의탁할 것이 못되고 자신을 억압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인식된다. 위씨에게 있어서 집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집은 안전한 곳,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 집 - 특히 시가는 자신을 억압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운영은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인 불평등, 궁녀가 되었기 때문에 겪는 감금의 생활로 인한 불만이 마침내 원한이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 進士拆對書視之 其亂曰 曩者 巫女神女 傳致一札 琅琅玉音 滿紙丁寧 …… 欲飛無翼 腸斷消魂 …… 父母愛妾 偏於諸子中 出遊嬉戲 任其所欲 …… 年十三 主君招之 故別父母 遠兄弟 來入宮門. …… 恨不得爲男 立身揚名 而爲紅顔薄命之軀 一閉深宮 終成枯落而已. 人生一死之後 誰復知之. 是以恨結心曲 怨塡胸海. (每)停刺繡 而付之燈火 罷織錦 而投杼下機 裂破羅幃 折其玉簪.……[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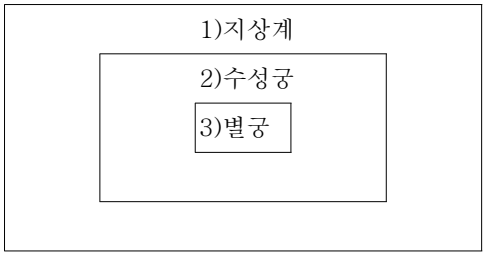
운영의 자유를 구속하는 첫 번째 장애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며, 두 번째 장애는 궁녀가 된 것이고 세 번째 장애는 김 진사와 사랑에 빠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김 진사와 도망하기로 한 계획이 탄로 남으로써[68] 별당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성(性)은 운영에게 사회적 진출, 즉 입신양명을 막는 첫 번째 장애이다. 운영은 자신이 남자였으면 입신양명을 하였을 텐데 남자가 못되어서, 즉 여자이기 때문에 궁녀가 되어서 갇혀 있다고 본다. 어릴 때 부모는 매우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 주었는데, 궁녀가 되면서 부모 형제와 이별하고 동시에 자유를 제한 당한다. 궁녀로서 운영은 다른 궁녀들과 답답하게 지내던 중 김 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것은 운

---

67) <운영전>, p.278.
예전에 무산의 신녀가 한통의 편지를 전해 주기에 받아 보니, 옥처럼 낭랑한 목소리가 종이 가득히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 날아가고자 해도 날개가 없으니 애는 끊어지는 듯하고 넋은 나간 듯했습니다. …… 부모님께서 저를 여러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어 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 놀거나 장난하게 두시었습니다. …… 13세가 되어 주군이 부르신 까닭에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한 채 궁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하지 못하고 홍안박명의 몸이 되어 깊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처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이 마음속에 맺히고, 원망이 가슴의 바다를 메웠습니다. 매번 수를 놓다가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으며,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던지고 베틀에서 내려와 비단 휘장을 찢거나 옥비녀를 꺾어버리곤 하였습니다. …… pp.134-136.

68) <운영전>, pp.286-288.
此言傳播 入於宮中 告于大君. 大君大怒 使南宮人 搜見西宮 則妾之衣服寶貨 盡無矣. ……大君之怒稍解 囚妾于別堂 而其餘皆放之. 其夜 妾以羅巾 自縊而死.

영에게 원한을 맺는 계기가 된다.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몸으로서 사랑에 빠졌으므로 사랑의 열정은 자신을 괴롭히며 원한을 맺게 하고, 마침내 궁녀로서의 계율을 어김으로써, 더욱 폐쇄적인 감금의 상태, 즉 별당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운영의 감금 상태는 위에 살펴본 것처럼 단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겹쳐 있다. 그녀의 감금은 1) 여성 2) 궁녀 3) 김 진사와의 사랑(자유로운 사랑) 때문에 삼중으로 중첩된다. 즉 운영이 사회적 · 제도적으로 감금의 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의 감금으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의 원인 중에서 안평대군이 경직된 유교 질서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읽어 내지 못한 것이다. 비록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바탕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이 있음을 작가는 암시하고 있는 셈이며, 그것은 여성 인물들이 모두 신의 있게 그려지고 남성 인물들의 부정적으로 그려진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안평대군과 特이 부분적으로 긍정할 만한 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의 수난이 작품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안평대군과 特은 운영에게 수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된다. 즉 안평대군은 이기적인 독단에 빠진 인물이며, 特은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다. 게다가 사랑의 대상인

김 진사는 사랑하면서도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종에게 속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69]소심하고 무기력한 인물이다.[70]

자란이나 다른 궁녀들도 감금의 현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71]하고 있고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안평대군적 질서의 부당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란은 냉정한 현실적인 논리로 운영으로 하여금 너무 경솔히 행동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자란의 충고를 받아들인 운영의 망설임 때문에[72] 운영과 김 진사의 탈출 계획은 特의 배신에 의해 탄로 나서 수포로 돌아가고 운영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소망은 좌절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운영의 이러한 시도는 바로 자신에 대한 철옹성 같은 제도의 굴레에 대한 도전이었던 바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운영의 탈출에 대한 소망이 가장 절실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자살이다. 운영의 자살은 자신의 소망에 대한 현세적 성취의 가능성이 박탈당한 것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의 표현인 동시에, 그러한 박탈에 대한 저항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리적인 현실 공간인 별당과 동료들과 함께 안평대군적 질서에 의해 유폐된 공간인 수성궁, 그리고 유교적인 윤리 질서가 지배하는 남성중심적인 현실 공간인 지상계에서의 가장 확실한 탈출을 의미한다. 운영의 자살은 바로 그와 같은 3중의 감금

---

69) 김연숙, 앞의 책.
김 진사는 특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이 맡긴 운영의 재물을 빼돌렸음을 알고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망설이다가 도리어 특의 술수에 말려들어 운영과의 결연이 탄로나게 만들었다. 그 후에도 김 진사는 또 特에게 일을 맡긴다. 김 진사의 이러한 행동은 김 진사가 판단력이 미숙하고 무능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운영전>, p.286.
進士知特之所爲 率奴十餘名 不意圍其第搜之 則只有金釧一雙 雲南寶鏡一面. 以此爲贓物 欲呈官推得 而恐事泄. 不得此物 則無以供佛. 心欲撒特 而力不能制 黽默不語.

70) 김 진사는 부정적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심생전>의 심생처럼 주변적인 상황에 포위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무력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71) <운영전>, p.275.
紫鸞曰 而牢鎖深宮 有若籠中之鳥 聞黃鸝而歎息 對綠楊而戲欷.

72) 자란은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신의가 있는 친구이자 지혜로운 여성이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운영으로 하여금 주변적인 여건이나 남에게 미칠 피해를 고려해서 행동을 하도록 충고함으로써, 운영의 열정이 탈출이란 행동으로 바로 옮겨가지 못하고 망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상태로부터의 탈출인 것이다.

여성이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할 때 여러 가지 장애와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의 인정을 받아 내지 못함,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음, 연적의 방해 등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집이나 감옥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 공간이 등장하게 된다. 요컨대 여성에 대한 감금은 사회적 ·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정신적인 굴복을 받아 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성을 길들이려는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발로인 것이다.[73] <운영전>은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이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여 정신적인 승리에 이르는 것을 그림으로써, 감금과 탈출의 미학적 긴장감을 보여준다.

2. 안평대군의 이중성

<운영전>에서의 안평대군은 학문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궁녀들의 삶을 구속하고 본능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진 이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운영전>에서의 안평대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 莊憲大王子 八大君中 安平最爲英睿 上甚愛之. 賞賜無數 故田民財貨 獨步諸宮. 年十三 出居私宮 私宮卽壽聖宮也. 以儒業自任 夜則讀書 晝則或賦詩 或書隷 未嘗一刻放過. 一時文人才士 咸萃其門 較其長短 或至鷄叫參橫 講論不怠 而大君又工於筆法 鳴於一國.[74]

---

73) 춘향이 옥에 갇혀서 원하지 않는 수청들기를 강요당하는 것이나, <심생전>의 여성 인물이 집밖을 나가지 못하고 죽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74) <운영전>, p.263.
장헌대왕의 아들 8대군 가운데 안평대군이 가장 영리하고 뛰어났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시문이 뛰어나고,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안평대군은 <운영전>에서 여성의 재주가 남성의 재주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궁녀들을 뽑아 훈육을 시작한다.

> "天之降才 豈獨豊於男 而丈於女乎. 今世以文章自許 不爲不多 而皆莫能相尙 無出類拔萃者 汝等亦勉之哉." 於是宮女中 擇其年少美姿容者十人 敎之. 先授諺解小學讀誦 而後庸學論孟詩 書通宋 盡敎之. 又抄李社唐音數百首 敎之 午年之內果皆成才.[75]

이렇게 운영을 포함한 10명의 궁녀들을 뽑아 시문을 읽히고 가르칠 정도로 안평대군은 진보적인 사고를 지닌 긍정적인 인물이다. 안평대군은 여러 문사들과 교우하면서 시 짓기와 토론 등을 즐겨하였지만, 그들의 시를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이에 안평대군은 자신이 훈육한 궁녀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 즉,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을 훈육한 후, 이들의 재주를 서로 다투게 하며 자신을 위한 '문장의 벗'으로 삼았다.

> 今日 與文士某某飮酒 有一林靑煙 起自宮樹 或籠城堞 或飛山麓. 我先占五言絶

여 상금을 무수히 내려주신 까닭에 전민과 재물이 대군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군이 13세 때 사궁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 입니다. 대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예서를 쓰는 등 일찍이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인과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수성궁에 모여들어 실력을 겨루었는데, 때로는 새벽닭이 세 번 울 때까지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군은 필법에도 뛰어나 온 나라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p.101.

75) <운영전>, pp.263-264.
"하늘이 재주를 내릴 때 어찌 유독 남자에게만 많이 내리고, 여자에게는 적게 내렸겠느냐? 오늘날 문장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나, 대개 서로가 엇비슷하여 특별히 뛰어난 자가 없으니 너희들도 힘쓰도록 하라." 이어서 대군은 궁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어여쁜 자 10명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소학언해』를 주로 외우게 한 뒤에 『중용』, 『대학』, 『맹자』, 『시경』, 『서경』, 『통사』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또 이백과 두보 등 당시(唐詩)를 몇 백 수 가르치니 과연 5년도 채 안 되어 10명 모두가 재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pp.103-104.

句一首 使客次之 皆不稱意. 汝等以年次 名以製進.[76]

이에 대하여 안평대군이 훈육한 10명의 궁녀들은 차례대로 시를 지어 올리는데, 이들의 시에 대하여 안평대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雖此於晩唐之詩 亦可伯仲 而謹甫以下 不可執鞭也.[77]

이렇듯 안평대군은 재주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男尊女卑라는 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사회 환경 속에서 이러한 행위는 진보적이며 파격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파격적인 행위는 여기까지가 한계이다.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이 궁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게 된다.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을 자신만의 소유로 하고자 했던 것이다.

大君皆甚撫恤 尙畜宮內 使不得與人對語. 日與文士盃酒戰藝 而未嘗而妾等 一番相近者 盖慮外人之或知也. 常下令曰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女之名 則其罪亦死."[78]

---

76) <운영전>, p.264.
오늘 문사 모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줄기 푸른 구름이 궁중의 나무에서 일어나 성벽 꼭대기를 둘러싸기도 하고, 또 산기슭으로 날아가기도 하였다. 내가 먼저 오언절구 한수를 짓고 손님들에게 운에 맞춰 시를 짓게 하였는데, 모두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이 순서대로 각각 시를 지어 올려라, p.105.

77) <운영전>, p.266.
비록 만당의 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것이며, 근보(성삼문) 이하는 채찍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pp.107-108.

78) <운영전>, p.264.
대군은 대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군은 매일 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예를 다투었으면서도 일찍이 우리가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궁궐 밖의 사람들이 혹 우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군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 p.104.

안평대군의 절대 권력과 권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을 사궁에 두고 궁문 밖 사람이 그들을 알지 못하도록 했으며, 만약 그들이 궁문을 나가거나 그들의 이름이 궁문 밖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안평대군은 중세적 절대 권력과 권위를 소유한 인물이다. 안평대군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이러한 중세적 성격은 여자로서 살기를 희구하는 궁녀들의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는 데서 더욱 드러난다.

10명의 궁녀들이 지은 시를 평가하던 중, 운영의 시를 읽고 난 안평대군의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자.

> 我初見時 優劣莫辨 一再翫繹 則紫鸞之詩 意思深遠 令人不覺嗟而蹈舞也. 餘詩亦皆淸好 而獨雲英之詩 顯有惆悵思人之意. 未知 所思者何人. 似當訊問 而其才可惜 故姑置之.[79]

궁녀들의 궁문 밖 출입을 금할 정도로 엄격했던 안평대군은 운영이 '사람을 그리는 정'이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재주를 아까워하며 그냥 넘어 가고 있다. 안평대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도 남녀의 정욕이 있음을 부정하며, 오로지 시문에만 전념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성삼문은 정확히 꿰뚫고 있다.

> 才不借於異代 自前朝迄于今 而已六百餘年 以詩鳴於東國者 不知其幾人 而或沈獨而不雅 或輕淸而浮操 皆不合音律 失其性情. 今觀此詩. 風格淸眞 思意超越 小無塵世之能 此必深宮之人 不與俗人相接 只讀古人之詩 而晝夜吟誦 自得於心者. 祥味其意 其曰臨風獨惆悵者 有思人之意. 其曰孤篁獨保靑者 有守貞節之意.

---

79) <운영전>, p.266.
내가 처음 볼 때는 우열을 분별하지 못했는데 다시 음미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란의 시가 생각이 심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감탄하며 춤추게 하는구나. 나머지 시들도 모두 맑고 고우나 오로지 운영의 시에만 쓸쓸히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 모르겠구나,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심문을 해야 하겠지만, 네 재주가 아까워 잠시 놓아두노라. p.108.

其曰風吹自不定者 有難保之態. 其曰幽思向楚君者 有向君之誠. 其曰荷葉露珠留者 西岳與前溪者 非天上神仙 則不得如此刑容. 格調雖有高下 而薰陶氣像 則大約皆同. 進賜宮中 必養此十仙人 願母隱一見.[80]

성삼문은 10명의 궁녀들이 지은 시를 보고 안평대군이 그들을 심궁에 두고 훈육했음을 간파한다.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기를 요구하는 안평대군에 의해 궁녀들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지냈던 것이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측면은 다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汝等十人 同在一室 業不專一 當分五人 直之西宮.[81]

이렇듯 안평대군은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차단도 모자라, 그들끼리의 세계조차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안평대군의 행위는 인간적 감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녀들에게서 그러한 감정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욕이 제거된 탈속의 세계를 최고로 여긴 중세적 윤리관[82]에 입각한 것

---

80) <운영전>, p.268.
재주는 다른 시대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왕조부터 지금까지 이미 6백 여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로써 이름을 날린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흐림에 빠져 우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경쾌하고 맑으나 들떠 있는 등 대개 음률에 합당치 않거나 성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들을 보니 풍격이 맑고 진솔하며, 생각과 뜻이 뛰어나서 속세의 태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시들은 반드시 깊은 궁중 사람이 속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옛 사람의 시를 읽고 밤낮으로 음송하여 마음 속에서 절로 체득한 것입니다. 상세히 그 뜻을 음미해 보면, '바람을 맞으며 홀로 슬퍼하네'라고 한 것은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담겨 있으며, '외로운 대나무 홀로 푸른빛을 간직하였네'라고 한 것은 정절을 지킬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바람 불어 이리저리 흩날리니'라고 한 것은 자신을 보존하기 어려운 태도가 담겨 있고, '그윽이 초나라 임금을 생각하네'라고 한 것은 임금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으며, '이슬방울 되어 연잎에 머물렀네'와 '서쪽 묏부리와 앞 시내에 걸쳐 있네'라고 한 것은 천상의 신선이 아니면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격조에는 비록 높고 낮음이 있으나, 덕과 의로써 교화하려는 기상은 대체로 같습니다. 나리의 궁중에서 이 10명의 선인을 기르고 있음이 틀림없으니, 원컨대 조금도 속이지 마십시오. pp.111-112.

81) <운영전>, p.274.
너희들 열 사람이 한 곳에 같이 있어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니, 마땅히 다섯 사람을 나누어 서궁에 거처케 하라. p.124.

이라 할 수 있다. 박일용 교수는 이러한 안평대군에 대하여 '절대적 권위를 가진 궁중의 규율은 안평대군이라는 매개적 인물을 통해 조선 중기 이후 사대부들의 세계관인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의 권위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다.'[83]라고 하였다. 즉, 폐쇄적 궁중 질서 속에 중세적 유교 윤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교 윤리가 운영과 김 진사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전>에 등장하는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을 중시하고 글에 능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재주를 아낄 줄도 아는, 그 시대로선 파격적인 남녀평등의 사고를 보이는 긍정적인 면을 지닌 인물이기도 하지만, 궁녀들의 삶을 구속하고 본능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3. 궁녀들의 변모와 갈등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을 뽑아 훈육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소옥, 부용, 비경, 비취, 옥녀, 금련, 은섬, 자란, 보련, 운영이다. 갈등의 조짐은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들을 훈육하면서 나타나는데, 훈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宮女中 擇其年少美姿容者十人 敎之. 先授諺解小學讀誦 而後庸學論孟詩書通宋 盡敎之. 又抄李杜唐音數百首 敎之 五年之內 果皆成才.[84]

---

82)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 양상과 작가 의식」, 『고소설 연구 총서』 제5집, 아세아문화사, 2001, p.466.

83) 박일용, 앞의 책, 1993, p.174.

84) <운영전> p.264.
대군은 궁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어여쁜 자 10명을 뽑아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소학언해』를 주어 외우게 한 뒤에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경』, 『서경』, 『통사』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또 이백과 두보 등 당시를 몇 백 수 뽑아서 가르치니, 과연 5년도 안되어 10명 모두가 재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pp.103-104.

이렇게 운영을 포함한 10명의 궁녀들은 안평대군에게 뽑혀 시문을 익히게 되는데, 안평대군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 大君皆甚撫恤 尙畜宮內 使不得與人對語. 日與文士盃酒戰藝 而未嘗以妾等 一番相近者 盖慮外人之或知也.[85]

재능 있는 여러 문사들과 토론하기를 즐기던 안평대군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안평대군은 10명의 궁녀들을 사궁에 두고 궁문 밖 사람이 그들을 알지 못하도록 했으며, 만약 그들이 궁문을 나가거나 그들의 이름이 궁문 밖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궁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궁문 밖 사람이 그들의 이름을 알 경우에 죽음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운영을 포함한 10명의 궁녀들은 갇혀 있는 신세이다.

> 妾鄕南方也. 父母愛妾 偏於諸子中 出遊嬉戲 任其所欲. 園林水涯 梅竹橘柚之陰 日以遊翫爲事. 苔磯釣漁之徒 罷牧弄笛之兒 朝暮入眼. 其他山野之能 田家之興 難以毛擧. 父母初敎以三網行實 七言唐音. 年十三. 主君招之 故別父母 遠兄弟 來入宮中.[86]

---

85) <운영전> p.264.
대군은 대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군은 매일 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예를 다투었으면서도 일찍이 우리가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궁궐 밖의 사람들이 혹 우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p.104.

86) <운영전>, p.279.
제 고향은 남쪽 지방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여러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어 제 마음대로 밖에 나가 놀거나 장난하게 두시었습니다. 저는 숲속과 시냇가를 돌아다니며 매화, 대나무, 귤나무, 유자나무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노니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끼 낀 냇가에서 낚시하는 무리들과 풀 먹이기를 마치고 피리 부는 목동들을 아침저녁으로 보았으며, 그 밖의 산과 들의 모습, 농촌의 흥취 등은 머리털처럼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삼강 행실과 칠언 당음을 가르치셨는데, 13세가 되어 주군이 부르신 까닭에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한 채 궁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p.135.

이는 운영이 궁에 들어오기 전 상황이다. 운영은 13세 때 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가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았었다.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와 평범한 궁녀였던 것이 안평대군에게 발탁되어 가르침을 받으면서 평범한 궁녀의 생활에서 벗어나 盛唐의 시인들의 울타리를 엿볼 만한 재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운영은 궁문 밖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 있다. 이러한 때에 용모가 신선 같은 젊은 유생인 김 진사를 보게 되었으며, 운영은 마음 속에 김 진사를 품게 된다. 김 진사를 마음에 품으면서 운영은 더 이상 예전의 운영이 아니었다. 차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운영의 부연시와 점점 여위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이 운영을 타일러 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때 자란이 그녀가 숨김없이 말할 것을 바란다.

> 女子生而願爲有嫁之心 人皆有之. 汝之所思 未知何許情人 悶汝之形容 日漸減舊 以情悃問之 幸須毋隱.[87]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라는 자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란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일반 여성들과 다른 처지에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부연시를 계기로 운영은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취 등이 서궁으로 옮겨 기거하게 된다. 이렇게 10명의 궁녀들은 각각 5명씩 서궁과 남궁에 따로 기거하게 된다. 이 때에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 旣非舍人 又非僧尼 而鎖此深宮 眞所謂長信宮也.[88]

---

87) <운영전>, p.268.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다 있다. 네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얼굴이 날마다 점점 여위어 가고 있다. 이것이 염려되어 진정으로 묻는 것이니, 모름지기 숨기지 않길 바란다. p.112.

장신궁은 한나라 때 태후가 거처하는 장락궁 안에 깊숙한 곳[89]으로, 여기에서는 궁궐 안의 깊숙한 곳을 말한다. 즉,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 된다. 운영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모두 탄식하며 슬퍼하게 된다. 이들은 운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운영과 자란의 자각만 보이지만, 이제는 서궁의 궁녀들 모두가 어느 정도 자신들이 일반인의 처지와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서궁 궁녀들의 자각이 남궁 궁녀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계기는 완사장소 논쟁 과정에서이다. 자란은 운영과 김 진사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중추에 완사의 장소로 소격서동을 계획하게 되는데, 완사의 장소로 '기존의 장소인 탕춘대로 할 것인가 새로운 장소인 소격서동으로 할 것인가'라는 외유를 두고 벌이는 남궁과 서궁 간의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 吾聞昭格署(洞) 乃祭天星之處 而洞名三淸云. 吾徒十人 必是三淸仙女 誤讀黃經 謫下人間. 旣在塵寰 則山家野村 農墅漁店 何處不可. 而牢鎖深宮 有苦籠中之鳥 聞黃鸝而歎息 對綠楊而獻欲. 至於乳燕雙飛 栖鳥兩眼 草有合歡 木有連理 無知草木 至微禽鳥 亦稟陰陽 莫不交歡 吾儕十人 獨有何罪 而寂寞深宮 長鎖一身 春花秋月 伴燈消魂 虛抛靑春之年 空遺黃壤之恨. 賦命之薄 何其至此之甚耶. 人生一老 不可復少 子更思之 寧不悲哉. 今可沐浴於淸川 以潔其身 人于太乙祠 扣頭百拜 合手祈祝冀 資冥佑 欲免來世之此苦也. 豈有他意哉.[90]

---

88) <운영전>, p.274.
우리는 이미 도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비구니도 아닌데 이처럼 깊은 궁중에 갇혀 있으니, 이곳은 참으로 장신궁이라 할 만하다. p.125.

89)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 양상과 작가 의식」, 『고소설 연구 총서』 제5집, 아세아문화사, 2001, p.125.

90) <운영전>, pp.275-276.
내가 듣기로, 소격서동은 곧 옥황상제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서 동네 이름을 삼청이라 했다고 한다. 우리들 열 사람은 틀림없이 삼청궁의 선녀였는데 황정경을 잘못 읽고 인간 세계에 적강했을 것이다. 이미 속세에 살게 되었으니 산가나 야촌, 농촌이나 어촌 등 어느 곳인들 불가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깊은 궁중에 꼼짝없이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있으면서 누런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대하면 흐느끼곤 한다.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 가운데는 합환초가 있고 나무 주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양

자란이 완사의 장소를 소격서동으로 하기 위해 남궁에 찾아가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는 부분이다. 이를 계기로 남궁의 궁녀들은 자란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 온갖 짐승과 초목들이 음양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는데, 오직 자신들만이 적막심궁에 갇혀 외로이 늙어가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고 이런 자각이 남궁의 궁녀들에게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금련이 역경을 펼쳐 놓고 점을 친 후, 점괘를 얻어 풀이하는 부분을 보자.

> 明日 雲英必遇丈夫矣. 雲英容貌擧止 似非人世間者也. 主君心已久 …… 今舍此寂寥之處 而欲往彼繁華之地 游俠年少 見其姿色 則必有喪魂欲狂者. 雖不能相近而指點送目 斯亦辱矣. 前日 主君下令曰 '宮女出門 外人知名 其罪皆死.' 今此之行 妾不與焉.[91]

이와 같이 금련은 운영의 사랑에 동참할 것에 거부한다. 금련이 운영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군의 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欲以垂死之人 置之於天壇之上. 今日之計 不得成 則泉壤之下 死不瞑目 怨歸南

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심궁에 오래도록 갇히어 꽃 피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벗하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만 남기고 있다. 타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어찌 이렇듯 심하리오? 인생은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는 것이니, 너는 다시 생각해 보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내가 소격서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맑은 냇물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뒤에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또 손을 모아 기도하여,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부처의 보살핌에 힘입어 내세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면하고자 함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pp.127-128.

91) <운영전>, pp.276-277.
내일 운영이 반드시 사내를 만날 것이다. 운영의 용모와 행동이 인간 세상이 아닌 듯해서 주군이 마음을 기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 지금 이처럼 적막한 곳에 살면서 저렇듯이 번화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만약 놀기 좋아하는 소년이 운영의 자색을 본다면 반드시 정신을 잃고 미치려 할 것이다. 비록, 서로 가까이는 할 수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점찍어 두고 눈길을 보내는 것 역시 욕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주군이 '궁녀가 궁문을 나가거나 궁궐 밖의 사람이 그 이름만 알게 되어도 그 죄로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pp.130-131.

宮 其有旣乎. 書曰 '作善降之百祥 不善降之百殃.' 今此之論 善乎不善乎.[92]

비경의 이와 같은 말에 이어 소옥은 다음과 같이 동조의 뜻을 보인다.

妾旣許諾 三人之志順矣 豈可半塗而廢乎. 設或事泄 雲英獨被其罪 他人何與焉哉. 妾不爲再言 當爲雲英死之.[93]

소옥의 이와 같은 말을 계기로 모두들 운영의 사랑에 동참하기에 이르는데, 궁녀들끼리의 갈등은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라는 안평대군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측과 운영의 일에 동참하려는 측과의 갈등이다. 운영의 일에 동참하려는 측은 남녀 정욕을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운영이 김 진사와 함께 도망할 것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은 그들을 말린다. 지금까지 자란은 운영과 김 진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이런 자란이기에 운영과 김 진사의 탈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응을 보인다. 그들의 사랑을 두세 달의 불장난으로 보고 있으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탈출의 불가함을 말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안평대군과 대군의 부인, 부모, 동료 궁녀들에 관한 것이다. 즉, 중세적 유교 윤리를 내세워 그 불가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란이 운영과 김 진사의 결연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자란 자신도 안평대군이라는 중세적 유교 윤리와 남녀 정욕이라는 여성으로서의

---

92) <운영전>, p.277.
죽기에 이른 사람을 하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구나. 오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이 남궁에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느냐? 『서경』에 이르기를, '착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祥瑞)를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논쟁은 선한 것인가 불선한 것인가? pp.131-132.

93) <운영전>, p.277.
내가 이미 허락하였고, 세 사람이 이미 나의 뜻에 동조하였다. 어떻게 중간에 그만 둘 수 있겠느냐? 설혹 일이 누설되더라도 운영이 홀로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나는 두말 하지 않고 마땅히 운영을 위해 죽으리라. p.132.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궁녀들의 변모 과정과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궁녀들의 변모는 운영에게서 시작된다. 운영의 변모가 서궁의 궁녀들에게 확대되고, 자란으로 인하여 남궁의 궁녀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내적 갈등을 겪고, 그들끼리도 갈등을 한다. 그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여성으로서의 본능을 자각하게 된다.

Ⅴ. 비극적 미학

<운영전>은 고진감래를 통한, 권선징악에 의한 행복한 결말로 마감되는 대개의 조선조 고전소설과는 달리 궁녀라는 제약된 신분의 운영과 궁외인 김 진사와의 죽음을 부른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서글픈 결말로서 고전소설 중에서 유일한 비극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1920년대 이후의 여러 문학사의 소설론을 통해 대개의 학자들로부터 비극소설로 규정되고 수용되어온 <운영전>에 대해 몇몇 이견과 반론의 제기도 있었다. 즉 安自山은 <운영전>에 대해 최초의 언급을 한 학자인데 그는 "우리 고소설에 순 비극이라 하는 것이 없으니 <운영전>이 비극적인 요소를 지니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순 비극이라 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94]

이는 金台俊의 비극규정[95]이래 계속 부정되어 오다가 정태복에 이르러 순수비극이 될 수 없다는 근거를 고찰하는 차원에서 다시 지지되어졌다.

정태복은 "운영과 김 진사의 연사만을 중심으로 한다면 <운영전>은 지금 논의되는 바와 같이 호종을 깨뜨린 미회유의 비극소설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나 이는 피상적 파악이며, 운영과 김 진사는 연사후 그들이 지상에서 못다한 정을 옥황상제 앞에 모두 영락을 누리고 있으며 천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 인간으로의 출세를 원치 않는다고 자백하고 있으니 비극에서 다시 호종으로 처리되어 순연한 비극소설이 될 수 없으므로 이조소설에는 결국 비극이 없다는 명제가 성립된다"고 기존의 학설에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96]

안자산과 정태복의 異論 이외에는 "비극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선 학자가 미미한 형편이며 김태준 이래 "<운영전>이 비극소설이다"라는 설을 지지해온 대개의

94) 안자산,『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p.102.
95) 김태준,『조선소설사』, 학예사, 1933, p.71.
96) 정태복,「운영전의 문제」,『고대문화』11, 고려대 총학생회, 1971, pp.117-119.

학자들에 의해서도 “비극이면 어째서 비극인가 하는 분석고찰의 과정이 없이”[97] 무비판적으로 비극소설 규정이 지지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작품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비극성의 규명이 아쉬운 형편이다.

이처럼 <운영전>은 비극소설인가 아닌가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처지에 놓인 작품이다. 그러므로 本項에서는 <운영전>의 비극시비에 대해 일단 “운영전은 비극적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성의 규명을 위해 그들에게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외부적 요인을 살펴보고 신화적 방법의 차원에서 프라이(N. Frye)의 4계 표상에 맞추어 작품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운영전은 비극소설이다”라는 결론을 유도해 보고자 한다.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과 삶은 비장미로 일관하고 있다.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리움에 애가 타고, 천행으로 밀회를 나누면서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함으로 가슴 조여야 했던 운영과 김 진사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외부적 장애요인 앞에 결국 비참한 자결로써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면, 운영과 김 진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불행을 초래한 외부적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계절과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따져 <운영전>의 비극성을 규명해 보기로 하겠다.

---

97) <운영전>이 비극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은 70년대에 들어온 소재영(「운영전의 비극성」, 「운영전 연구」 -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4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에서 시작되어 丁海珠(「운영전의 비극적 구조 고찰」, 성신여대 석사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1976.)등에 의해 후속연구가 되어 오고 있으나, 이들의 고찰만으로는 미흡함이 남아있다.

1. 불행초래의 외부적 장애요인

<운영전>의 불행이 운영과 김 진사의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임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처럼 그들의 사랑을 억압하고 제약하여 방해한 인물은 우선은, 궁녀라는 신분의 운영이 하나의 상전으로 모셔야 했던 주군, 안평대군이다. 또 간악한 흉계로 운영과 김 진사를 곤경에 빠뜨려 자결로써 삶을 마감하도록 만든 김 진사의 하인, 特이다. 이 두 인물이 바로 운영과 김 진사의 불행을 초래한 외부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안평대군은 나이 어리고 아리따운 자태를 지닌 재주있는 열 궁녀를 뽑아 자신의 궁 안에 가두어 놓고 거듭 베푸는 시연에 많은 문사를 초대하면서도 궁녀와 그들과의 접촉을 일체 금하는 등 학문의 동반자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그들을 자신의 파적노리개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궁외출입은 물론 외부인이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될 때는 참형으로 다스리겠노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날 수성궁을 찾아든 소년선비, 김 진사를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궁녀들과 무심히 합석시킨 대군의 처사로 말미암아 운영과 김 진사는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결국 안평대군의 실수에 의해 만남을 이룬 그들이었지만, 또한 안평대군의 제약에 의해 사랑을 맺을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인 그들이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바로 볼 때 안평대군은 열 궁녀 중 운영에게 남다른 뜻을 품었던 듯하다. 즉 안평대군과 운영과의 관계에 대해 운영 자신은

大君未嘗有意於妾 而宮中之人 皆知大君之意在於妾也.[98]

98) <운영전>, p.266.
일찍이 대군은 저에게 마음 둔 적이 없었으나, 궁중 사람들은 모두 대군이 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108.

라고 대군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궁녀들은

> 主君傾心已久　而雲英以死拒之 無他 不忍負夫人之恩也. 主君之威令雖嚴 而恐傷雲英之身 不敢近之.[99]

라고 믿고 있었다 하니 운영에 대한 안평대군의 특별한 애정은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영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김 진사에 대한 연모의 정은 운영에게 남다른 정을 품은 안평대군의 날카로운 감시에 걸려 수차례 의심을 사게 된다. 운영이 지은 부연시와 철쭉시를 통해 타인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는 안평대군의 혹독한 문초와 운영의 괴로운 변명은 계속 잇따르고 결국에 가서는 대군에게 쏟아지는 동료 궁녀들의 항변과 운영에 대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끝났음을 느낀 운영은 안평대군의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 급기야 자결하여 삶을 마감하고 만 것이다.

한편, 서로 그리워하는 김 진사와 운영 사이에는 높은 궁장이 가로막혀 있었다. 이 장애요인의 극복을 도와준 이가 김 진사의 하인, 特이었지만 결국 김 진사와 운영 사이의 사랑에 극한적 장애요인이 된 장본인은 다름 아닌 特이다. 계획적으로 상전을 몰락시킨 바로 特이였던 것이다. 그는 운영의 궁외탈출을 돕는다는 구실로 운영의 보화를 간계를 써서 탈취하는가 하면 수성궁장 밖 점쟁이를 찾아가 운영과 김 진사의 관계를 은근히 소문냄으로써 급기야 그들의 밀회가 안평대군에게 발각되게 하여 운영의 자결을 유도하고 있다.

特은 운영의 자결 후에도 운영을 위해 불공을 바치라는 김 진사의 당부를 속이고 불공비를 탕진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다. 이를 알게 된 김 진사의 발원으

---

99) <운영전>, p.276.
주군이 마음을 기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운영이 죽기로써 거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차마 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군의 명령이 비록 엄하시나 주군도 운영의 몸이 상할까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 p.130.

로, 죽음으로써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로써 운영과 자신의 원수를 갚고 몰려드는 허탈감으로, 김 진사 또한 세상사에 무상함과 허망함을 느끼고, 살아나갈 뜻을 잃어 자결로 삶을 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계층의 불합리한 실제상황을 통해 당시 유교적 폐쇄사회의 모순된 논리와 제도를 폭로함으로써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욕의 문제가 타의에 의해서 인간의 정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복종과 정절만 강요된다는 제도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작품은 “현실지향성”이라는 기본 테마로써, 인간적 삶을 동경하고 인간 본능인 애정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그리하여 주인공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도 모순된 사회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게 한다.

여기에 이 작품의 비극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써 현실상 우위, 인간중심적 지향을 추구한다. 그리고 인간과 세계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끝내 인간이 좌절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현실에 대한 애착을 반어적으로 더욱 강조한다.

한편, 이 작품의 내부담은 대략 세 가지의 시련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운영과 김 진사의 첫 만남 후 재회하고자 하나 만날 방도를 찾지 못할 때이다. 둘째, 안평대군 그리고 당대의 유교적 이면과 사회 질서에 맞닥뜨려졌을 때이다. 셋째, 노비인 特으로 인해 운영과 김 진사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탄로나 운영이 죽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인 불사까지 그르쳐졌을 때가 그것이다.

이에 첫 번째 시련은 동녀 궁녀들과 무녀 그리고 노비 特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서신을 전달해 주어 재회를 가능하게 해준 이는 바로 궁녀들이었다. 또 다시 심궁에 갇혀버린 운영과 김 진사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사다리를 만들고 월장을 도와준 것은 特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시련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애정과 충심 사이에서 생긴 갈등이다. 운영은 안평대군 사궁의 한 궁녀로서 그 나름대로의 규범과 질서를 쫓아 연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세계와 직접 충돌 없이 인생에 충실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방법에는 인간적인 본능과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모순이 전제된다.

반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 인간 본능의 애정을 추구하자면, 상전에는 불충이요, 궁녀라는 신분적 제약 또한 만만치 않은 장애요소였다. 이에 엄청난 심적 갈등을 겪은 운영은, 대군과의 갈등이 파국으로까지 치닫지 않고 대군의 아량 내지 선심으로 화해되고 용서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현실에서의 모순을 전제로 한 운명에는 단호히 타협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다. 운영이 김 진사와의 사랑을 포기하고 작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엔 그것은 너무나 벅찬 슬픔이었다. 결국 운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 비극적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품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에 대항, 죽음을 통해 사랑의 고귀함을 보여준 비극적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시련은 상전과 하인간의 신분적 갈등이다. 特은 계교로써 상전을 도와 김 진사를 능동적 행동으로 이끌기도 하고, 반면 상전을 모해하여 해치고 재산과 운영을 가로챌 흉계를 꾸미기도 하여 사건이 비극적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악인으로 그려진다.

이로써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방해한 여러 장애요인 가운데에서 대표적 인물인 안평대군과 特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삶의 과정에서 뒤따르는 고난과 시련의 요소로 작용하여 그들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유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운영전>에는 운영의 회고담과 김 진사의 회고담, 유영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시점의 다양한 변화, 현실과 비현실의 시제 혼란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역전들을 통해 작품의 영적 · 심리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운영과 김 진사도 유영과 마찬가지로 맺지 못할 사랑이라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상실한 자기동일성을 회복한다. 융(Jung)의 심리학에서는 생각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모든 의식의 중심에 위치하는 나를 '자아'하고 의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으나 마음의 분열을 지양하고 하나로 통합 하게하는 요소로 무의식의 중심에 위치하는 나를 '자기 자신'(self) 또는 본연의 '자기'라고 부른다.

인간이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힐 때 즉, 대립세계에 놓이게 되면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자기와 자아의 분열 상태이며, 자기동일성의 상실이라 말할 수 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만족한 상태는 자기와 자아의 합일 상태이며 자기동일성의 회복”[100]인 것이다.

김일렬에 의하면 “유영의 나이 20여세로 사춘기를 넘어서는 이 무렵은 심리학상 Libido의 왕성한 발달과 성격형성이 이룩되어 가는 상태다. 유영이 집을 나와 수성궁으로 향한 것은 수성궁 주위의 경치가 특히 후원의 경치에 황홀하게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엔, 봄철의 자연적 정서가 청소년의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는 상식이상으로 평소에 유영의 심리속의 잠재하고 있던 강한 심리적 동기를 분석해 낼 수 있다.

우거진 초목과 백화의 난만함은 식물 신화론적 입장에서 보다 근원적인 동기로 귀착된다. 식물을 중심한 아름다운 산수풍경이 여성을 상징한다든지 꽃 자체가 식물의 성기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초두의 배경 제시는 주인공의 심리적 리얼리티를 암시하고 있다.”[101]

수성궁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계적 삶을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좌절의 삶을 마감한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 유영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그들의 혼령을 만나서 그들의 허망한 인생사를 시련과 고통으로 간접 경험하게 된다.

유영은 학식을 갖춘 선비이나, 집안이 가난하여 친구도 없이 고독하며 차림새가 남루하고 낯빛이 파리하여 이로 인해 남들의 조소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열등감이 쌓여, 뜻한 바대로의 행동에 항상 제약을 느껴야 하는 “욕구 좌절된 경험의 세계”[102] 에 살아야하는 대립세계에 놓임으로써 심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불안정한 인물로 이러한 대립세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언제나 자기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 주인공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길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

100) 이부영 ,『분석 심리학』, 일조각, 1982, p.99.

101) 김일렬,「운영전 고 (1) - 주로 심리학전 입장에서」, 경북대학교,『어문논총』6호, 1971, p.4.

102) P. Hernadi, *Beyond Genre*,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사, 1983, p.162.

서 벗어나 비일상적인 시간으로 들어가 새로운 경험을 겪음으로써 '자기동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영은 일상적 시간이 소거되는 성스러운 공간인 수성궁의 서원에 들어 운영과 김 진사의 혼령과 만남을 통해 덧없는 사랑의 고통과 시련으로 깨달은 인간세상의 부귀공명에의 무상함을 간접경험하고 바로 그 부귀공명에 연연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버린 자아를 되찾아 수성궁을 나온 후 자기동일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2. 절기의 비극성

다음으로는 계절과 사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가졌던 인간은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나 사랑의 문제를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시간에 일치시켜 전개하려는 미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자연의 순환질서는 곧 문학의 전개 양식 즉 플롯을 낳게 하는 종자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103]

이처럼 문학의 상상체계를 춘하추동의 순환원리에 둔 것이라 본 프라이(N.Frye)에 따르면 봄은 재생 · 만남, 여름은 성장 · 결혼, 가을은 이별, 겨울은 소멸 · 시련의 단계가 되는데 라비킨(Eric S:Rabkin)은 서구의 전형적 로맨스를 이 순환체계에 둔 것이라 보고 구성해 보이고 있다.

① 봄에 소년과 소녀가 만난다.
② 여름에 소년과 소녀는 사랑에 빠진다.
③ 가을에 어떤 장애물이 이 사랑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다.
④ 겨울에 소년은 시련, 시험, 고행을 겪는다.

103) 이광풍, 『현대 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p.96.

⑤ 봄에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성취된다.[104]

이러한 서두의 이론을 우리의 작품 구성에 적용시킴은 무리이겠으나, 우리의 대표적 고전인『춘향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염정소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어, 자연의 이러한 순환원리가 보편적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를 <운영전>에서 운영과 김 진사가 겪는 사건을 계절과 관련,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가을 : 김 진사가 안평대군을 찾아와 궁녀와 합석하게 된 자리에서, 운영과 김 진사는 만남을 이룬다. 중추절 완사 행사를 틈타 운영과 김 진사는 드디어 만난다.
겨울 : 눈이 내려 궁장 안에 진사의 발자욱이 생기자 운영과 김 진사는 불안해한다. 김 진사가 지은 비해당 현판시로 대군의 의심을 받는다. 운영과 김 진사의 도망을 권장하며 特의 간계가 시작된다.
봄 : 대군이 운영의 시에서 김 진사의 싯구와 상응하는 연정을 간파하고 운영을 의심한다. 特의 간계로 그들의 관계가 발각되어 운영은 대군으로부터 심한 문초를 받은 후 운영이 자결한다.
여름 : 운영이 죽은 후 김 진사는 特을 시켜 운영을 위한 불공을 당부하나, 特은 불공비를 탕진하고 김 진사를 속인다.
가을 : 特의 소행을 안 김 진사는 부처에게 발원하고 特은 죽는다. 원한을 갚은 후, 세상사가 무상하고 허망하여 김 진사도 자결한다. (죽음을 통해 김 진사는 만남을 이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전>의 계절과 사랑에 얽힌 사건의 추이는 라브킨의 구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운영과 김 진사에 있어 봄과 여름은 만남과 사랑의 계절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 사랑을 방해 받고 결국 운영의 자결을 부르는 이별과 죽음의 계절이 되고 있으

104) Eric S. Rabkin, 『공간 형식 플롯』,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논리』, 대방출판사, 1983, p.226.

며, 시련과 고행의 겪을 겨울만은 라브킨의 구조에 부합되어, 그리워하나 만날 수 없고 만나도 불안에 떨어야 하는 고난의 계절이 되고 있어 결국 운영과 김 진사에게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 모두 험난한 시련의 계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물이 사랑의 성취를 방해하는 이별의 가을에 역설적이게도 운영과 김 진사는 만남을 이루고 있어 라브킨의 구조에 강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가을에 운영과 김 진사는 첫 만남을 이루고, 이듬해 가을 중추절 즈음, 사랑에 빠진 이후로는 처음으로 다시 만나서 계속 밀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김진사가 운영의 죽음을 뒤따라감으로써 지하계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도 결국은 현세에서의 가을에 이룬다. 이처럼 <운영전>에서는 만남의 계절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사실은 만남부터가 기나긴 이별을 강요받고 여러 장애요인에 의해 방해받아 결국은 성취될 수 없는 사랑을 예시하는 근거가 된다.

프라이는 "희극(봄), 로맨스(여름), 비극(가을), 풍제(겨울)와 같이 네 가지 플롯을 사계의 순환에서 유추해 내고 있는데"[105] 운영과 김 진사가 만남을 이루는 계절이 가을이 되고 있음은 <운영전>이 비극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입증하는 사실이 되고 있다.

---

105) N. Frye, *Th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이해』, 한길사 1982, pp.228-312.

Ⅵ. 결론

이상으로 <운영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과 Ⅲ장을 종합해서 보면 <운영전>은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의 영혼을 만난 것은 꿈을 통한 몽유현상이 아니라, 현실적 시 · 공간에서 실제로 겪은 비현실적 환상체험이다.

이 만남은 유영이 몽중과 같은 비현실적 시 · 공간에 든 것이 아니라, 운영과 김 진사의 영혼이 유영이 사는 현실적 시 · 공간에 듦으로써, <운영전>이 몽유록 소설의 서술구조의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엄밀히 말해 몽유록 소설은 아니며,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환상적인 액자구조를 가진 소설의 한 형태라고 본다. 환상체험으로의 변모양상을 시간적 배경인 봄, 달(月)로는 보름이며, 하루 중에 보름달이 뜬 저녁때부터 새벽녘까지의 밤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인 인왕산 아래 수성궁의 서원을 환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재생을 상징하는 현실적 시간과 이계로의 출구를 상징하는 현실적 공간에서 선경으로 초대되어 환상체험을 겪게 된 것이라 본다. 그리고 유영을 환상체험으로 인도한 요인은 바로 '술'로서 유영은 술에 취해 황홀한 상태로 빠져들어 영혼을 영계로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Ⅳ장에서는 갈등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갈등의 주무대인 궁궐은 감금된 곳, 이성간의 사람이 금지된 곳이라는 불만이 마침내 원한이 되어 토로하고 있다. 이 궁궐은 사회적 · 제도적 감금의 상태로 본 것이다.

궁궐 안의 갈등인물로 안평대군과 궁녀들이 있었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시문을 가르칠 정도로 남녀 재주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긍적적인 면이 있었으나, 궁녀들에게서 인간적 욕망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궁녀들은 안평대군의 억압에 대해 서서히 자각하는 변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변모의 과정은 처음에는 운영과 자란에게서 나타나며, 그것이 완사 장소 논

쟁을 계기로 해서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그 과정에서 갈등을 보이는데, 궁녀들끼리의 갈등도 보이고 내적인 갈등도 보인다. 그 갈등은 중세적 유교 윤리인 안평대군에 대한 충과 궁녀 자신들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비극적 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에는 비극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온 감이 있는 <운영전>을 불행초래의 외부적 장애요인과, 계절과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운영전>은 비극적 미학의 특성을 지닌 소설로 보았다. 즉 운영에게 애정을 품고 그녀를 구속하는 안평대군과 계획적으로 상전을 몰락시킨 特이라는 외부적 장애요인에 의해 불행이 초래되고 있으며 운영과 김 진사가 만남을 이루는 계절이 봄이 아니라, '가을'이 되고 있어, 비극을 예시하는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김기동, 필사본『고소설 전집』, 아세아문화사, 1980.
이상구 역주, <운영전>,『17세기 애정 전기 소설』, 월인, 1999.

2. 단행본

김기동,『한국 고전 소설 연구』, 교학연구사, 1983.
김동욱, 한국단편소설선,『한국고전문학대계』13, 민중서관, 1976.
김연숙,『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김장동,『조선조 소설의 작품론 고』, 형설출판사, 1986.
김태준,『중보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_____,『조선소설사』, 학예사, 1933.
성현경,『운영전의 구조』, 형설출판사, 1978.
소재영,『고소설 통론』, 이우출판사, 1983.
안자산,『조선문학사』, 한일서점, 1922.
이광풍,『현대 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이부영,『분석 심리학』, 일조각, 1982.
이재선,『한국 단편 소설 연구』, 일조각, 1975.
황패강,『한국 서사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77.
Alan Swingewood,『문학과 사회학』, 정혜선역, 한길사.
Eric S. Rabkin, 『공간 형식 플롯』, 김병욱 편, 『현대 소설의 논리』, 대방출판사,

1983.
Mercea Eliade, *Cosmos and History*, 鄭鎭弘 譯,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6.
_____,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聖과 俗,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1983.
_____,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종교 형태론』, 이은봉 역, 형설출판사, 1982.
N. Frye, *Th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이해』, 한길사 1982.
P. Hernadi, *Beyond Genre,*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사, 1983.
Rene, Girard · 김윤식 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86.

3. 논문

김낙효, 「<영영전>과 <운영전>의 비교연구」, 『한국학논집』 제18집,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0.
김열규, 「우리문학의 재생 모티브-신화적 재생 상징, 그 형상과 원리」, 『문학과 비평』, 1989.
김영화, 「<운영전>의 대비적 고찰」, 『건국어문』 13 · 14합집, 건국대학교, 1989.
김일렬, 「<구운몽>과 <운영전>의 비교 연구」, 『어문논총』 9 · 10 합병호, 경북대학교, 1975.
_____, 「운영전 고 (1) - 주로 심리학전 입장에서」, 경북대학교, 『어문논총』 6호, 1971.
_____, 「운영전에 나타난 사랑과 世界觀的 苦悶」,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4.
김장동, 「<운영전>의 시점과 時制意識」, 『한국문학연구』 제8집, 동국대학교, 1985.

大谷森繁, 「<운영전>소고」, 『조선학보』 37, 38호, 일본 천리대학교 조선학회, 1966.

『민족문화총서』2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박일용, 「<운영전>과 <상사동기>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_____,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 시대의 애정 소설』, 집문당, 1993.

배원룡, 「<운영전>과 <영영전>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2, 국제대학교, 1981.

소재영, 「<운영전>연구 : 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통권 41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손광주, 「<운영전>연구 : <영영전>과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송정애, 「<운영전>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신재홍, 「몽유록의 유형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안병설, 「우언의 문학적 수용에 대하여」, 『국민대학교 논문집』 제12집. 1977.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1980.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 양상과 작가 의식」, 『고소설 연구 총서』 제5집, 아세아문화사, 2001.

이성동, 「<운영전>과 <영영전>의 대비적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정규복, 「<운영전>의 문제」, 『고대 문화』 제 37 · 38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1970.

정태복, 「<운영전>의 문제」, 『고대 문화』 11, 고려대, 1971.

정해주, 「<운영전>과 <영영전>의 구성 대비」, 『연구논문집』 제2집, 성신여자대학교, 1984.

_____,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